



봄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8(4351) 봄호 통권23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8 030405 Vol. 23

**AU**  
1973

연결된 세상, 협력하는 지성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아주대학교 개관 45주년 2018 봄호  
AJOU UNIVERSITY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18 03 04 05 Vol. 23

**AJOUINSIGHT.**

<아주인사이트> 2018(4351) 봄호인 아주대학교 함께 통권 23호



special  
새로움 달리움 멀리움

우리들의 빛나는 새 출발

<아주인사이트> 2018 봄호 특집



“빨리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대학을 만듭시다.”

‘생각의 힘, 연결의 힘’ 강조한  
제16대 박형주 아주대 총장 특집 인터뷰

# a word of editors

“저는 아주대에서 건강한 씨앗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꽃을 활짝 피웠죠.” 꿈꾸던 유지선의 길은 좌절되고 전공 공부에는 도무지 흥미가 없던 한 공대생, 그의 이야기가 이번 호에 담겼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 방문을 두드린 복학생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준 한 교수님의 정성,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 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학도 시도해 본적 없는 ‘학부생 반도체 공정 교육’ 프로젝트에 착수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때 비로소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신념. 그러한 교육이 졸업생의 경쟁력이 되고 곧 학교의 경쟁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2016년 봄, 아주인사이트가 만났던 ‘국민할배’ 재현국 선생의 말씀입니다. 아주의 공간과 아주의 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찌우고 지혜를 꽃피우게 하는 장(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을 향한 진심과 더 큰 꿈을 향한 신념- 묵묵히 걸어온 두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따뜻한 봄바람이 이 계절 더 많은 아주가족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 率



**성호관 벚나무 [Prunus serrulata]**  
4월이 되면 성호관을 중심으로 분홍의 꽃망이 펼쳐진다. 중앙도서관과 성호관 사이에서 야간 조명이 들어오면 수놓이는 빛꽃놀이 명소가 된다.



**학생회관 옆 메타세콰이어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 오랜 시간을 견뎌온 강인함으로 아주인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학생회관을 지키는 듯 광장 성형 화단에 우뚝 서있다.



**노원극장 밤나무 [Castanea crenata]**  
아주대의 차분한 캠퍼스 느낌처럼 '도근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졌다. 가을이 되면 밤송이와 붉은 단풍으로 유적원과 노원극장을 주변을 감싼다.



**중앙로 은행나무 [Ginkgo biloba]**  
10월이 되면 정문에서부터 펼쳐진 노란 단풍의 매다가 중앙도서관-유적관을 잇는 길목까지 손님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선구자상 소나무 [Pinus densiflora]**  
사계절 푸른 모습이 뜻밖엔 절개와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가장 오래된 건물인 원원관과 아주대를 상징하는 선구자상을 둘러싸고 있다.



**송재관 매화나무 [Prunus mume]**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대의 역사처럼 송재관과 아주대병원 근처에서 '새춘날' 할 때를 일리는 매화꽃이 핀다.

# 04 08 13 16 22 24

# 28 30 32 34 36 38

 <b>새출발 특집 인터뷰</b> "일찍 일어난 새민큼 밤부엉이 가치도 크다" <b>박형주</b> 총장	 <b>특집 기고</b> "새학년 늘 추위와 고독을 뚫는다" <b>김상배</b> 전자공학과 교수 "열아홉의 나에게" <b>이우석</b> e비즈니스학과 "스물여섯의 나에게"  <b>정지용</b> 기계공학과 "스무살! 망해도 연애가 최고지!"  <b>김민식</b> MBC PD	 <b>파란학기제</b> 나의 꿈으로 만드는 새출발 파란학기제 소개 "그때, 내가 나를 낳았다."  <b>김성하</b>	 <b>Trinity Semester</b> 특집 새출발 프로그램  Global Internship Program 미국-유럽 최대 3학기 교환학생제  Trimester 복수학위제  단기 과전 프로그램  Trust Practice Program 신실습 후강의제  Cheer up Change up  창업지원  아주지원센터  아주상담센터	 <b>AFTER YOU</b>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 먼저"  <b>정재훈</b>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b>임재성</b> 교수  <b>김정환</b> 동경공대 교수  <b>김대명</b> 심리 12  <b>김용성·서형탁·송봉성</b> 응용화학생명공학과·신소재공학과·기계공학과 교수  <b>교육부 파란사다리 사업</b>
---	---	---	---	--

 <b>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b> "데이터사이언스, 새로운 학문인가? 오래된 학문인가?"  <b>정재훈</b>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b>전공소개 국방디지털융합학과</b> "국내 유일의, 국방IT전문기가 되자!"  <b>임재성</b> 교수	 <b>해외 동문 메시지</b> "음악 바보가 반도체 마보로"  <b>김정환</b> 동경공대 교수	 <b>괴짜같은진짜</b> "지금이 아니면 언제?"  <b>김대명</b> 심리 12	 <b>연구뉴스</b> NAEK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 선정 外  <b>김용성·서형탁·송봉성</b> 응용화학생명공학과·신소재공학과·기계공학과 교수	 <b>뉴스</b>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선정 外  <b>교육부 파란사다리 사업</b>
---	---	---	---	--	--

새 출발 특집 제16대 신임 총장 인터뷰

# “오고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즐거운 곳- 그런 '아주문화'를 향해 다시 시작합니다.”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박형주 수학과 석좌교수가 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 임기를 시작한 박형주 총장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수학의 대중화에 앞장 서온 수학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수학연맹(IMU) 집행위원에 선출됐고, 서울에서 열린 <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며 전세계 수학자들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새 봄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아주대 캠퍼스에서 박형주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행\_ 남경호 /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정리\_ 이슬 / 브랜드전략실

● 총장 취임 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임 전과 비교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임 총장으로 어떤 '새 출발'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취임한 뒤 많이 바빠졌지만, 이제는 바쁨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들 둘도 모두 성장했거든요. 우선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서 뭔가를 읽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내향적이 되기 쉬운 성격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편이지요.  
취임 후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월에는 우리 학교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총장실에서 만날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 아주 발전 위한 '데이터 수집' 강행군 마쳐가 곧 실행안 도출 할 것

## 데이터 모으는 것에서 시작, 합리적 사유의 결론 찾는 것이 통찰

## 변화는 '큰 경험' 보다 '우연한 계기'가 더 많이 이끌어

공간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각각의 공간을 보면 그곳 사람들의 분위기나 문화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자기 영역에서 어떤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여러 사안에 대한 제언과 비판들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집중적인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3월 한 달은 교수 전원을 만나리라 마음 먹고 단과 대학 별 교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에서 준비한 발표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 육아휴직과 같은 생활밀착형 질문부터 총장의 역할에 대한 제 신념이나 비전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 답하면서 제 생각이 정리되어 가는 듯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과는 전임 총장께서 만든 '총장 북클럽'을 이어가며 꾸준히 만나려고 합니다. 북클럽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고 교수와 직원도 원하는 경우 함께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신임 직원들은 전원 참석해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매주 월요일 도서관 북카페에서의 티타임(12:45~13:15),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총장실 오픈 하우스(14:30~15:30)를 신설해 총장과 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만들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작이나 도전을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라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경험일 수 있겠지요. 저는 한마디로 '시골 도서관이 키운 아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서관에 가는 게 좋았는데, 그 계기는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추측해 볼 뿐이지만,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친절했거나 매일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또래친구들보다 더 품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등의 자질한 이유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된 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책을 그부터 허가지 모조리 읽어 버리겠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 실행했으니까요. 대학 입학 전에 시골 도서관의 책을 모두 읽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며 책장에 꽂혀있는 문학전집을 모조리 독파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니, 친구 부모님들도 좋아하셨지요(웃음).

돌아보면, 삶을 바꾸는 경험이 꼭 거대한 경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듯해요. 제가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책'과 관련한 소소한 계기 덕이었습니다. 부어 집에서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주라는 도시로 나가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큰 서점이 있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 과외교사를 해서 번 돈으로 '영어로 된 책을 사야지' 하며 서점에 들러 책을 두 권 샀어요. <어원학(Etymology)>과 <아인슈타인 전기>였죠. <어원학>은 정말 어려워, 괜히 샀다고 후회하면서 읽었습니다. 한데 이 책을 읽고서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영어뿐 아니라 독어와 불어로 된 논문 정도를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책이 그 출발이 되었어요. <아인슈타인 전기>는 영웅 서사시 같이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스위스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던 아인슈타인이 주경야독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영웅이 태어났구나' 매혹됐죠. 그 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 여러 전공을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한 계기는?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은 뒤, 넓고 깊은 학문의 세계를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고교 1학년 말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친구들 보다 1년 먼저 대학에 입학한 셈이지요. 1982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접하면서 재미있게 생활했습니다. 시위 같은 사회참여에도 관심



이 많았죠. 학과에서는 1~2학년때 고전역학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는 고전역학은 우아하고 아름답거든요. 3학년 때 양자역학, 즉 현대물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구멍이 많고 완결이 덜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그 무렵 현대대수 과목에서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Galois)의 이론을 배우며 자연과 우주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대칭성과 불변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갈루아의 이론을 통해 '측정' 없이 완벽하게 세상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된 거죠. 그때 미련 없이 물리학과를 버리고 수학자의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떠나 대학원에서 순수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또 한번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자공학과로의 만남입니다. 1993년 장학금이 끊기며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 유학생활동을 중단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햄버거 3개로 버틴 적이 있을 만큼 힘든 시기였는데, 어느 날 학교 카페 테리아에서 열린 토론회를 하는 몇몇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전자공학의 신호 처리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듣다 보니 제가 아는 어떤 수학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에 끼어 들었죠. 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이들 사이에 전자공학과 교수님 계셨고, 그들의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그 전자공학과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 재정지원을 받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제가 공부했던 순수수학이 전자공학의 난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식의 가치는 그것의 응용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 일을 통해 '연결'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경험이었죠.

● **미래 사회의 키워드로도 '연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 '세상은 점점 연결되어 가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래는 '융합' 보다는 '연결'의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 융합이라는 단어는 조금 거칠고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융광로에서 서로 다른 영역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융합'이라면, '연결'은 각 분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수학과 음악의 관련성이 크다고 해서 수리음악학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두 분야가 합쳐져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얹고 넓게 여러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전문분야는 깊이 파야겠지요. 자기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실형실예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틀어박혀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서 잠시 빠져 나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지요. 내 분야의 난제는 이 지식의 체계 안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벗어나는 게 답이죠.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 전부터 다뤄왔던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 **'연결된 세상'을 이끌 인재에게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통찰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주로 나이팅게일의 예를 듭니다.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에서 고통 받는 부상병들을 돌보며 이들이 '왜 죽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그저 전쟁 탓에 사망자가 많다고 생각했던 통념에 의심을 해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본질적 질문이자 위대한 질문

## 지식의 가치는 전혀 무관하던 것의 '연결'에 있어

## 한 분야 난제... 그 지식 체계 안에서는 잘 안풀려 타분야에선 이미 해결됐거나 실마리 나와

## 일찍 일어난 새보다 밤부엉이의 가치 큰 경우 많아 '자신의 방식'이 최적

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수학에도 재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망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해낸 나이팅게일은 부상병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감염, 즉 위생의 문제였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추진해나갔습니다.

저는 통찰이라는 것이 일단은 '데이터(data)'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모아 이에 기반을 둔 합리적 사유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언뜻 볼 때는 갑자기 나타난 결론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근거 없는 추측은 미신과 다름 없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결국은 공부와 독서와 경험 등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사유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그 '생각' 연습의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제 연배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트랜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속 배우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지요. 배우기 불가능한 환경에서 그 일을 즐길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배움'을 통해 새로운 개인적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 ●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얼마 전 우리 학교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연금술사>를 추천했습니다. 소년시절 꿈을 잊지 않고 유지해온 주인공이, 돌고 돌아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메시지가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총장 북클럽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여러 책을 함께 읽게 될 예정입니다. 독서와 관련해서는 자기계발서에서 너무 많이 의존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계발서에서는 많은 경우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밤부엉이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을 권하는 자기계발서 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기를 권합니다. 전기나 자서전도 이 범주에 들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슬픔과 성취 등은 그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시간이 날 때 취미처럼 하시는게 무엇입니까?

취미가..... 별로 없네요. 굳이 꼽자면 '일리 어답팅(early adopting)'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경험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 나온 IT 제품은 남의 것을 잠시 빌려서라도 사용해 보는 것을 즐기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제품 박람회(CES)'를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가면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시대 변화까지도 먼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들을 연구자들에게 압축해 전달하기도 했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과학자들에게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학교 구성원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은?

우리 아주대학교가 이제 개교 45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주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모습, 즉 '대학문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저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온다면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할 텐데요. 학교에 오고 싶고 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즐거운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된 공간이 늘어나고 북카페도 생기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 같습니다. 교육도 연구도 즐겁게 할 때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앞

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여기서 우리만의 대학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박형주 총장은?

총장남도 부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초·중학교를 마치고 공주로 유학을 떠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영어로 된 <아인슈타인 전가>를 읽고 나서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말 학교를 그만 뒀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친구들보다 1년 빠른 1982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 버클리대학 대학원에서 순수수학을 공부했고, 전자공학과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이후 미국 오클랜드대학 수학과에 교편을 잡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04년 귀국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포항공대 교수를 역임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15년 수학과 석좌교수로 아주대에 합류했고, 2018년 2월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아주인사이드> 편집팀과의 인터뷰 중인 박형주 총장(가운데)과 남경호 초빙교수(왼쪽), 이윤에(오른쪽).

## 제16대 박형주 신임 총장 취임사

# 대학, 21세기 연결의 시대를 만나다

"아주는 First Mover DNA 대학... '새로 배우는 즐거움'의 가치 키우자."

아주대학교가 올해 개교 45주년을 맞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낙관과 희망을 중심에 두고, 하지만 걱정과 주저함도 조금은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관과 희망의 근원은, 아주대학교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DNA를 가진 대학이라는 트레 레코드입니다.

아주대학교는 한국 대학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연 여러 개의 기록을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복수학위제·국제학부·전공 선택 자율제 등 부여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는 데 익숙한 곳입니다. 김동연 전총장이 시작한 '유쾌한 반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첫 시도였습니다. 선연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체를 가진 모습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점을 따는 파란학기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외국의 대학 생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AFTER YOU 프로그램'은 이제 아주대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 종합관의 바로 뒤 건물이 다산관입니다. 정약용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데에 일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어문, 역사, 지리, 과학, 의학, 예술 등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저술을 남긴 박학(博學)의 학자였습니다.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약용은 21세기 융복합 시대, 연결의 시대에 다시 조명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연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독자성을 살리는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융합'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바로 '연결'입니다. 새 시대를 맞아 대학은 서로 다른 분야의 충돌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학문 간의 견고한 벽을 넘나들며 연구하고 산업 난제의 해결에 기여해 사회와 국가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주어진 단순 문제를 잘 해결

하는 사람 보다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생각의 힘을 갖춘 작은 리더'입니다. 대학은 이제 지식전수형 교육의 종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만 기능하는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성을 터득해갈 수 있는 학생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각종 전문지식으로 무장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는 사람'을 배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벗어난 내용을 학습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니 즐겁다는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지식 창출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기존 지식은 금방 낡은 지식이 되어 버리고 일자리의 탄생 소멸이 빈번한 세상입니다.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생존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옛 성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가 우리 교육의 최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영화 <레옹>에서 견습생 살인청부업자가 되려는 소녀 마틸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장하기를 멈췄어요.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이죠" 이런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열번쯤 풀어진 수학 문제를 또 반복해 풀어야 하고 게다가 이런 일이 끝도 없이 반복해 일어나는 학창시절을 겪은 아이는 마틸다의 대사를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창 시절의 잔혹사는 학생에게서 성장의 자각을 잇아갑니다. 학생은 새로운 만남의 느낌도 성장의 자각도 경험하지 못하고 조로(老)합니다. 원가를 좋아해 볼 기회도 영영 날아갑니다.

우리 아주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성장의 자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밖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아주에서 터득한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구성원들이 학문 간 견고한 벽을 넘나들며 공동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 연구 성과가 줄줄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세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산업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와 국가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교육 과정과 연구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혁신해 가려 합니다. 따뜻한 배려와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 2월8일 총장 취임식의 취임사를 축약 게재했습니다.



special  
새로운 발  
달리  
달리  
달리  
우 리 를 의 빛 나 는 출 발  
<아주인사이트> 2018 봄호 특집

# 올해도 여린 새싹은 추위와 고독을 뚫고 솟았다

- 새로운 출발, 전자공학과  
'반도체공정 실습 교육모델' 성공기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김상배 전자공학과 교수

“처음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뭐가 싶었지만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디바이스(device)가 제 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행과정 중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마음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완성 후 전류-전압 특성 그래프를 본 순간 눈물이 흐를 뻔 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이러한 귀한 경험을 통해 전공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은 배우게 도와주고, 탁월한 교육은 배우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위대한 교육은 인생을 바꾼다고 했다. 배우는 이의 감동 없이 인생이 바뀔 수는 없을 터, 그러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교육의 필요조건이다. 글머리에 인용한 반도체 공정교육 첫 수강생의 소감은 그 필요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전자공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화합물반도체 광소자 교육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었다. 취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여서가 아니라 취업도 못하는 공과대학 졸업생을 배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 전자공학과는 학생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인력수요가

교육이란...  
배움을 돕는다  
↓  
배우는 능력을 높인다  
↓  
인생을 바꾼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 외부지원만으로 이렇게 곧바로 운영될 수는 없다. 전자공학과는 1980년대부터 반도체 공정용 클린룸을 운영해왔고 그 클린룸에서 대학원생들이 연구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교육을 학부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부생 교육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반도체 공정교육에는 값비싼 공정장비와 많은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공정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2018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에서 반도체 공정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보았다. 우리 전자공학과는 이 실낱에 과감히 도전하였다. 대학원생들이 쓰던 클린룸을 함께 사용하며 특성화사업 예산지원으로 공정장비를 늘리고 재료를 확보하면 반도체 공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자공학과와 반도체 공정교육은 기존의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다. 반도체 공정교육이 특히 그러하다. 종이 위에서, 칠판에서, 스크린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교육은 그 효과가 적다. 반도체 공정 이론과목만 수강하는 학생들과 반도체 공정 실습과 이론을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반도체 공

정 이론과목 성적이 이를 증명한다. 반도체 공정교육은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확보와 운영은 어렵지만 공정교육을 중심으로 반도체 교육을 하겠다고 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었다. 실습을 위주로 하는 반도체 공정교육을 하겠다는 큰 방향은 결정되었지만,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목표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다.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보면 세계 1위와 3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렇지만 생산품은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대학이 그렇듯 우리 전자공학과 교수진의 절대다수는 화합물반도체 기반의 광소자를 연구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를 연구하는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화합물반도체 광소자 교육이 이루어질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었다. 취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여서가 아니라 취업도 못하는 공과대학 졸업생을 배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 전자공학과는 학생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인력수요가

아주대의 학부생 대상  
반도체공정 교육  
세계 유례 찾기 힘들어  
2학기부터  
반도체 공정 새 클린룸 가동...  
공부와 사업의 독립성  
더 높아질 것

많은 산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수진의 구성과 상관 없이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켰다.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를 결정할 때 다른 이유는 실리콘 반도체공정이 전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선도한다는 사실에 있다. 가장 선진화된 공정기술인 실리콘 공정기술을 배우고 졸업하면 어떤 공정을 맡게 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의 목표는 졸업하고 나서 더욱 발전하는 엔지니어의 양성으로, 교육내용은 공정위주의 실리콘 전자소자로 결정하였다.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남았다. 특성화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산학협력 교수 활용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교수진 가운데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를 연구하는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사업 시작과 동시에 초빙하였다. 산학협력 교수가 주도하여 산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세부내용을 개발했다. 지금까지도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을 산학협력 교수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교수가 일관되게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 수업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일관되게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반도체 공정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딪힌 주요 어려움은 여전히 예산부족 문제였다. 반도체 공정교육에는 비싼 장비와 재

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화 사업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부족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기부금 모금을 시작했다. 졸업생 기업인들에게 반도체 공정교육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고 기부금을 부탁하자 흔쾌히 응해주어 예산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가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면 서부터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것은 사업 종료 이후의 상황이었다. 특성화 사업의 예산지원이 끝나면, 비록 공정장비를 비롯한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클린룸 운영비와 교육용 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도체 공정교육은 특성화 사업의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될 것이었다. 모금운동을 벌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모금으로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다. 그 방안은 재정적 독립과 공간적 독립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했다. 학교나 교육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운영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간적 독립이었다. 대학원생 연구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연구에 지장을 주어 대학원생들과 교수진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위한 수익사업, 즉 반도체 관련 기업 엔지니어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여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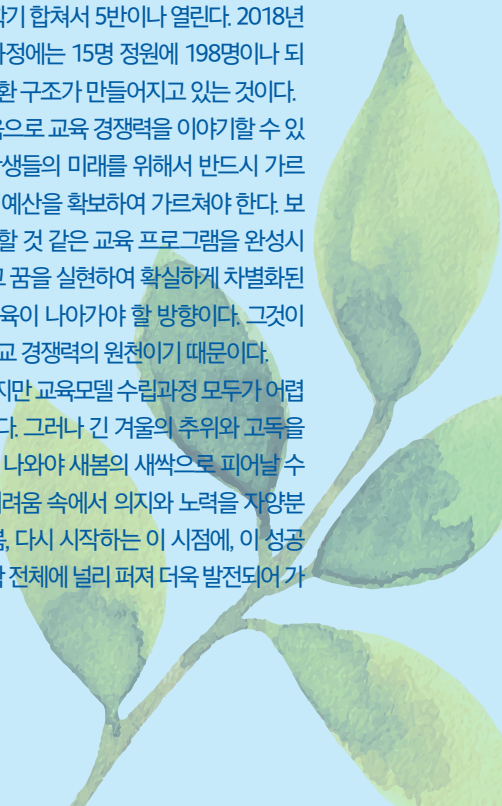
취업...절대적 가치 아나  
그러나 취업도 못하는  
공대생 배출 할 순 없다  
:  
입사 면접에서 합격을 넘어  
감탄까지 받고 오더라

없었다. 따라서 교육전용 클린룸과 공정장비를 확보하여 학부생 교육과 함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었다. 결국 둘 다 예산 문제인데, 어떻게 교육전용 클린룸과 공정장비를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해결방안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다. 우리 대학의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이었다.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체 근무 엔지니어를 재교육하는 재직자 과정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 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두 과정을 운영하여 실적을 쌓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들을 개설하는 것이 클린룸 여건상 무리였지만, 전자공학과 반도체 분야 교수들과 협의하여 2017년에 두 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초에 운영된 구직자과정의 교육정원은 15명이었는데 다른 대학 졸업생들까지 몰려 지원자 수가 무려 75명이나 되었다. 반도체 공정교육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 가을에 고용노동부에 반도체 공정교육사업을 신청하였고, 학교의 도움 등으로 약 5억 8000만원의 공정장비 구입예산 지원을 받아냈다. 새롭게 떠오른 문제는 클린룸 공간과 시설공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전자공학과와 공과대학 보유 공간을 합쳐서 클린룸으로 만들고, 전자공학과 발전기금과 그동안 모아

놓은 기부금을 합쳐 클린룸 공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일정 규모로 공사와 장비설치가 진행되면 올해 2학기부터는 새 클린룸에서 공정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반도체 공정교육의 재정적 독립과 공간적 독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9년부터는 전자공학과 학생뿐 아니라 공과대학과 자연대학 학생들에게도 반도체 공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는 발전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전체적으로는 취업률 증대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제는 재직자 및 구직자 과정뿐 아니라 별도의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기부금을 늘려 재정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일이 남았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공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덕분이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 가운데에서도 전체공정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반도체 공정은 물론 측정 분석, 시뮬레이션 모두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은 확실하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이미 증명된 사실로, 학부생 연구와 공정교육을 동시에 받은 학생들이 입사 기술면접에서 칭찬을 받고 올 정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값싼 교육으로  
교육경쟁력 주문 시대 끝나  
불가능은 큰 꿈의 출발로

쌓여진 명성이 취업률 증가로 이어져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3/4 정도가 반도체 분야로 몰리고 있다. 특성화 사업 이전에는 <반도체공학> 과목이 한 반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지금은 세 반이나 열린다. <반도체실함>은 간신히 2반을 여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 2학기 합쳐서 5반이나 열린다. 2018년 1, 2월에 진행된 구직자과정에는 15명 정원이 198명이나 되는 지원자가 몰렸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돈 안 드는 값싼 교육으로 교육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여 가르쳐야 한다. 보통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겠다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여 확실하게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것이 졸업생 경쟁력, 나아가 학교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행운도 따랐지만 교육모델 수립과정 모두가 어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긴 겨울의 추위와 고독을 이겨내고 굳은 흙을 뚫고 나와야 새봄의 새싹으로 피어날 수 있듯, 성공적인 모델도 어려움 속에서 의지와 노력을 재양분으로 하여 태어난다. 새 봄,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성공적인 교육모델이 우리대학 전체에 널리 퍼져 더욱 발전되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 열아홉의 나에게

- 졸업생 이우석이 새내기 이우석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석아 졸업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다. 고교시절 공부만 하며 지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가숙사,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참 즐거운 추억이 많았지. 평생 알고 지낼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멋진 선생님들도 만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었어.

대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 아마 '동기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을 거야. 정시로 합격했기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친구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크겠지. 그렇지만 걱정 마. 내가 장담하는데 그 친구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은 친구들이야! 딱 새내기 배움터만 다녀오면 대부분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될 거야. 아, 그전에 미리 노래 한 곡 정도 연습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춤도 조금 취미 할 지 모르겠다. 단 한번도 춤이란 걸 취본 적이 없던 지라 잘 해낼 리가 없겠지만, 아무도 너에게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 부담은 갖지마.

대학 신입생이고 성인이 되었으니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네. 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겠지만 마시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원래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체질이 아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대학 생활 내내 누구도 너에게 술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아직도 다시 대학입시에 도전해 볼까? 반수에 대해 고민하고

술 마시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단다  
'채도전' 고민하느니  
좋은 동아리 찾길

있나?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반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대학에 다니기를 잘 한 것 같아. 내가 보내온 지난 4년의 시간을 그대로 너에게 추천하고 싶어. 지금의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좋거든. 토익 성적이나 동아리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것 없어. 넌 1학년 때부터 아주 좋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될 거야. 두 살 많은 동기 형이 자기와 함께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 선택야학 이라고 한글을 배우지 못하는 어머니들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검정 고시를 준비하는 어머니들께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 드리는 동아리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달려가야 하는 날이 많아 힘들긴 할거야.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정말 잘 해주시고, 뭔가를 가르쳐드린다는 보람에 너 역시도 많이 즐거울 거야. 동아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비슷한 곳을 찾게 될지 몰라. 그 곳은 아마도... 수학 공부방의 보조강사가 될 것 같아. 중학교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인생에서 오랜 동안 기억에 남을 동아리 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였지만 1학년을 마치고 곧 그만두어야 할 거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곧 벌어지게 될 거라서 말이지. 1학년 2학기말 마칠 즈음 오른쪽 눈의 시야가 조금 흐려지게 되는데, 그때 먼저 동네 안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겠지. 간단한 검사 후 선천적 약시로 인한 중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거야. 이 글을 읽는 너에게 단호하게 힘주어 이야기 하는데, 그때 바로

큰 종합병원에 가야 해!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몇 달을 기다리며 여러 검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서울대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게 될 텐데, 너무 놀리지는 마. 너에게는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레베르시신경병증이 발병하게 돼. 안경도 한 번 써본적 없는 네가 5개월 만에 시력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나빠지게 되거든. 그래도 다행인 건, 절대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 병이라는 점이야.

너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눈이 나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나 곧 군대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일거야. 시각장애 1급으로 군 문제는 결국 해결 될 텐데, 갑작스런 발병에 여러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될 거야.

그래도 일단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게 좋겠어. 다가오는 버스의 번호가 보이지 않고, 강의실 호수가 안 보이고,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도 헷갈리겠지만 다행히 수업은 문제를 없을 거야. 교수님들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도와주실 거라서 말이지. 그런데 가장 곤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친구들 얼굴을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누구인지 금세 알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너는 금방 적응하게 될 거야. 버스를 탈 때에는 정류장 주변에 있는 분들께 '버스가 들어오면 알려주실 수 있을지' 부탁하고, 학교 안에 있는 장애인학생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 친구들도 금방 너의 상황을 알고 먼저 반갑게 인사해 줄 거야. 멀리서부터 네 이름을 크

'선천성 약시'가 발견될 거야  
사람들이 따뜻한 걸  
알게 될 거야  
단단해 질 거야

게 불러주는 친구도,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도 있을 거야. 학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적어도 백명의 사람들에게 이겼저것 사소한 것들을 부탁하게 될 텐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들 친절하게 도와 주실 거야. 세상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조그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도움을 받는 상대방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거야.

아! 그리고 또 이 병이 너에게 줄 행복한 경험을 또 하나 소개할게. 발병 소식을 듣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너를 만나러 찾아와 줄 거야. 몇몇은 울기도 할텐데... 내가 그 친구들을 위로해 줘야 해서 곤란하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을 거야. '내 주변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 난 참 복이 많은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겠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내 병이 언젠가는 치료 가능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무덤덤했는데, 돌아보니 이 병이 오히려 내 삶에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게 아! 내가 싶어.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려고 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나왔다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지립할 수 있을까' 걱정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대학에 와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단단해졌거든. 너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할게! ☘

안녕,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을 앞둔 18학번 지용아?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18학번 신입생으로서, 지금의 나는 말이지, 학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면서 재미있고 바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아주인사이트>에 이런 편지도 싶어 보고 말이야. 혹시 이 편지가 내 아주 시절의 '혹역사(?)'로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웬만하면 1학년의 애교로 생각하자. 졸업을 앞두고 다시 내 편지가 실린 <아주인사이트>를 다시 찾아보다가, 혹여 찢어버리거나 그러지는 말고, 다 너의 과거일 뿐이야.

졸업생이 된 미래의 나한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야 할 문제들보다는 미래의 내가 갖고 있을 것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상상해보면, 너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 지금의 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난 경험들은 말이야 - 급식이 아니라 학교 식당에서 골라서 밥 먹는 것, 그리고 이제 교복이 아니라 사복을 더 많이 입는 것 정도야. 아무래도 귀찮아서 학과 점퍼만 입고 다닐 것 같기도 하지만 말야.

네가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지금 내 제일 큰 걱정은 수강 신청이야. 수강신청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마찬가지로 1학년도 입학하게 되면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잖아. 물론 1학년인 나는 하나의 강의만 신청하면 되는데, 2~3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

이해해줘...  
늘편 놀더라도 공부하러지만  
1학년은 최대한 즐길거야

다. 난 시간표 짜는 데 도움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된 지도 얼마안됐어.

그리고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이랑 밥을 함께 먹었지만, 대학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특히 내가 속한 기계공학과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같이 강의를 듣는 동기들이라도 처음 얼굴을 보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걱정이야. 혼밥을 하는 일이 많아질까봐, 4학년인 너는 어떻게 해 나갔니? 잘 해결했겠지? 공부, 그리고 학점도 문제다. 선배들은 1학년으로서 놀 때는 놀더라도, 공부를 너무 게을리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던데. 학점 관리를 위해서 말이지. 너는 과연 그렇게 잘 해나갔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1학년 때 학점이 너무 저조해서 그걸 만회하느라 쪽 고생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렇지만 반대로 학점이 괜찮아서 좀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면, 내가 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도 되겠지? 부디, 제발, 네가 나에게 고마워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네가 대학 4년 동안 계속 잘 해놓았을 거라고 믿어.

이제 갓 대학에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소학회에 대한 것인데, 소학회 활동에 너무 빠져서 해야 할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 과제 폭탄을 맞고 너무 힘들다며 휴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지 하는 걱정도 하게 된다. 그 중 제일 큰 걱정은 군대지 위. 제대 후 복학할 때 학교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좋겠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시간을 그냥 혼자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군에 입대해서 제일 슬픈 점은, 부대를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야... 가기 전에 가장 마음이 위축되고, 어색한 부분은 머리를 아주 짧게 민다는 거잖아. 근데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리카락이 길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는 않았겠다.

난 집에서 아주대학교까지 통학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차를 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버스를 타면 1시간이나 걸려. 그래도 환승을 할 필요는 없어서, 버스를 이용할 생각인데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야. 9시에 수업이 있다면 7시30분에는 집을 나와야 하는데 이거 너무 걱정된다.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대로 가야 되니까 아침 수업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이야. 아직은 겁이 나서 시도를 해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차를 몰래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니?

영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대학교는 졸업하려면 토익 730점을 넘겨야 하잖아. 제발 그 점수 정도는 넘겼으면 좋겠어. 토익 성적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일은 없기를! 내가 이 문제를 너에게 넘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난 1학년 생활을 최대한 즐겁게 작정하거든. 그래도 아예 손을 놓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해둘 테니까 나를 원망하지는 마. 게다가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내가 다니던 영어학원이잖아. 이곳에서 조금



# 스물여섯의 나에게

- 새내기 정지용이 졸업생 정지용에게

경험과 시행착오로  
나를 잘 만들어 줬겠지?  
기대해, 내가 잘할게~

씩 쉬는 시간이 생기면 토익 공부를 해도 되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대학을 졸업할 무렵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 사실 잘 상상이 안 가. '1학년 때 술을 좀 적게 먹고 다녔어야 해'하면서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학년 때 참 재미있고 보람되게 지냈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넌 취업 준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겠다. 아직 나에게 취업 준비하는 게 왜냐면 미래라고 생각해서인지 너의 생활이 잘 상 상되지는 않아. 내가 될 하고 있을 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취업에 도움이 될 지 아직은 정말 모르겠어.

4학년이 되는 동안 여러 경험을 하고,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서 저절로 알게 되겠지?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을 거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 시행착오들을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나야. 나, 앞으로 잘 해볼게. 기대 해줘. ☘



e비즈니스학과 졸업 **이우석**



• 정지용 기계공학과 18학번



# 망해도 연애가 최고지!

## - 취향에 맞는 원가를 시작하는게 대학시절

안녕, 스무 살의 나? 너는 지금 대학 새내기로서 무척 설레는 봄을 맞이하고 있겠지? 아, 그 시절이 눈에 선하네. 대학에 들어가 소개팅, 미팅, 과팅, 열심히 하면서 여자 친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희망에 들떠 있던 시절. 30년 후의 너로서 살짝 말해주자면, 너의 연애는 망할 것이다. 1학년 2학기가 되도록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너는 어느 날 문득 그동안 했던 미팅의 횟수를 세어볼 거야. 일곱 번 연속으로 차였다는 걸 알고 궁금해지지. 나의 첫 연애는 몇 번째 소개팅에서 찾아오는 걸까? 연속 소개팅 실패 기록은 20회에서 멈추지. 스물한 번째 미팅에서 성공 하나요? 아니. 너는 20회 연속 차인 후, 연애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단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네 연애 생활의 반전은 방위병 복무 시절에 일어나거든. 만날 여자도 없잖아. 딱히 할 일도 없잖아. 너는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한다. 학원도 다닐 여유는 없으니 영어책 한 권을 외우지. 1년 6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에 중얼중얼 회화 문장을 암송했다니. 여라, 어느새 영어가 되는 거야. 극장에 갔더니 헐리웃 여배우가 내게 말을 걸어오네? 길에서 미국인을 만나면 내가 자꾸 시비를 거네? '어디에서 왔니?' '어디에 가는 거니?' '내가 길 가르쳐줄까?'

이게 제대로 영어를 하는 건가. 궁금한 마음에 너는 복학하자마자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회에 나가자. 전국의 고수들이 모인 그 대회에서 너는 2등상을 탄단다. 적성에 맞지 않는 공대를 다니며 괴로워하던 너는 영어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그 덕에 나중에 미국계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가지. MBC PD로 입사하는 것도 어쩌면 영어 덕분이

1년에 200권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평생 가는 자랑이 된단다. 사실 너는 그 시절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약천도룡기> 같은 김용의 무협지나 <태백산맥>, <객주>, <장길산> 같은 대하소설에 꽃혀서 그런 건데 말이지. 물론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과 <카네기 인간관계론(데일 카네기)>이야. 특히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읽고 너는 삶의 방식을 정하게 된다. 무엇 하나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를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부제는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인데,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지.

1년에 200권의 책을 읽고 복학한 너는 이제 화려한 연애를 시작해. 연극 동아리에 다니는 후배를 만나고, 7살 연하의 미대생도 만나고, 대학원 후배랑 사귀고, 이리다 바람둥이로 늙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결연하게 되지. 지금은 17년째 마음을 모시고 양전히 잘 살고 있단다. 아내를 닮은 어여쁜 딸도 둘이나 얻고 말이지.

연극 동아리 다니던 후배를 만날 땐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많이 봤단다. 연극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여자애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까지 하지. 그 후배에게 뺑하고 아프게 차였단다. 하지만 그 시절 연극을 즐겨본 기억은 훗날 드라마 PD가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대학 생활하며 술하게 차였던 너의 연애 잔혹사는 청춘 시트콤 <논스톱> 시리즈를 연출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의 연애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상

“과에서 일등하겠어”의 상대평가 벗어나  
 “영어 책 한 권 외우자” “매일 아침 글쓰자”식 절대목표로 바꾸자

처는 훗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밑천이 된다. 무엇보다 나를 선택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봉사하는 자세로 살게 되지. 영어공부니, 독서니, 글쓰기니, 내가 대학시절 했으면 하는 일들이 많지만, 반드시 하려고 권하지는 않을게. 대학 시절이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해.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상사나 고객이 시킨 일을 하며 살겠지. 대학을 다니는 동안이라도 너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기를 권한다. 누가 권하는 것보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좋지만, 딱 한 가지 권하지 않은 일이 있다. 절대로 약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지 마라. 약자에 대한 조롱을 재미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말이나 글을 통해 즐거움을 찾지도 마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훗날 너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예쁜 딸을 얻게 된다. 혹여나 그들에게 상처가 될 글이나 말은 절대 남기지 마라. 행여나 그런 걸 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노파심에 잔소리가 지나쳤다면 용서해주렴. 너무 부러워서 하는 말이야. 스무 살이라니, 스무 살이라니! 아, 얼마나 좋은 시절인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연애는 그 자체로 참 좋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즐거움이 연애가 아닐까 싶어. 언제 해도 좋겠지만, 역시 최고의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20대가 아닐까 싶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스무 살의 사랑. 너의 즐거운 연애를 응원할게, 건투를 빈다. ●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MBC PD 김민식

20회 연속 차인 연애  
 무협지에서 사회과학서까지  
 1년 200권 읽었더니  
 화려한 연애 시작돼

지 몰라. 하지만 영어가 네게 준 진짜 선물은 따로 있지. 바로 자신감. 신입생 시절, 너는 못생긴 외모를 심하게 의식하는 바람에 여자를 만나면 자학 개그를 펼치곤 했는데, 그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 연애는 멘탈 게임이거든?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 영어를 공부한 후 달라진 점은, 내가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단 거야. 연애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맛봐야 한다는 거지. 이때 목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 기준이면 좋겠어. '과에서 1등을 하겠어.' 이런 상대 평가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를 수 없는 목표. '영어책 한 권 외우겠어.' '매일 아침 글 한 편을 쓰겠어.' 이런 절대적 목표야. 그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지. 굳이 영어 공부나 글쓰기가 아니어도 돼. 어떤 목표를 이루기로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걸 해내는 기쁨을 맛보길 바란다. 그게 너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주고 연애의 근육을 길러줄 거야.

방위병 생활하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너는 도서관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여자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좋아. 책 속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면 되니까. 어느 날 울산 시립 도서관에서 연락이 오지. 독서주간을 맞아 다독상을 주는 데 네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본단다. '제가 1년간 몇 권의 책을 읽었나요?' "대출권수가 200권이 넘어요."



나의 꿈으로 만드는 새 출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새 출발 특집, 파란학기제 소개

파란학기제-  
 그때,  
 내가  
 나를  
 낳았다!

# JYP



김성하 미디어학과 졸업  
 <JYP엔터테인먼트>

2017년 1학기 파란학기제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사 창업 및 페스티벌' 기획, 주최

"파란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에서 배우는 이론적 학습 외에 더 큰 규모의 주도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여러 업무 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었고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의 꿈으로 만드는 새 출발

“할 수 있을까?를 할 수 있구나로”



n3n 재직

2016년 2학기 '꿈모집 및 프로젝트 팀원 구하기- 웹서비스 개발' '내가 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해 '내가 할 수 있구나'로 끝난 인상 깊은 경험. 혼자 파란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유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했었을 때 몰려온 성취감을 통해 부쩍 성장했음을 실감했다.

허윤희 미디어학과 졸업



“파란학기제로 아주대가 자랑스럽다.”



나은정 문화콘텐츠학과 16

‘드라마 기획 및 제작,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2017년 1학기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진로를 본격적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회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파란학기는 내가 아주대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었다.



“파란학기제는 아주 큰 혜택이다!”



콘텐츠 제작사 <밤부네트웍스> 창업

2016년 1학기 '웹드라마 제작 및 배급' '대학생활에서 무언가 얻은 것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예'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이유는 파란학기에 참여한 덕분이다. 약 1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아주대 학우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파란학기'에 꼭 한번 도전 해 보기를!

송운근 문화콘텐츠학과 12



“실제 해볼 수 있다는 값짐!”



이승철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삼성전자 재직’

2016년 2학기 'KhronosGroup의 OpenVGLite인증테스트 개발' 파란학기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대폭 상승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한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친해졌고 더불어 마음도 안정되는 느낌이였다. 해외 영업 업무를 하고 싶은 학생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키울 수 있었다.



“행동할 줄 알게 한다!”



LG화학 재직

2016년 1학기 '디 넓은 세상으로 도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큰 도움이 될것이라 믿는다. 후배들 역시 '행동할 줄 아는 능동적 인재'가 되기 위해 파란학기를 발판 삼았으면!

김도원 경영학과 졸업



“동고동락”으로 안정됐다.”



유태준 산업공학과 졸업

현대모비스 재직

2016년 1학기 '롤렌스: 통신행 인체 프로젝트' 파란학기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대폭 상승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한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친해졌고 더불어 마음도 안정되는 느낌이였다. 해외 영업 업무를 하고 싶은 학생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키울 수 있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OK, 우리에게엔 파란학기제가 있다!”



스마트 자전거 잠금 장치 제작사 <바사이큐> 창업

2016년 2학기 '스마트 자전거 잠금 디바이스 창업'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하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아니면엔 파란학기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을 확신한다."

현정호 기계공학과 11



“파란학기제로 진로에 확신을 얻었다.”



정원오 미디어학과 졸업

현대모비스 재직

2016년 1학기 '600cc 포틀러 차량 제작 및 대회 참가' 재미있고 유익했다. 경험과 성취감을 얻었다. 진로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다.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아주대학교가 2016년 시작한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 도전하기를 바라며 파란학기를 도입했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다. <아주인사이드>는 지난 파란학기에 참여했던 아주인들의 후기를 소개한다.

“좋아하는 일이 내게 맞는지 알게 한다. 진로가 구체화됐다.”



이슬희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6

‘음식 섭취 후 소변 냄새 유발 물질에 대한 다각도 분석’

2017년 2학기 '음식 섭취 후 소변 냄새 유발 물질에 대한 다각도 분석' 2017년 2학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일이 나와 맞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덕분에 진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다.



“참여의 전과 후가 달라졌다.”



지영림 문화콘텐츠학과 14

‘웹드라마 제작’

2016년 1학기 파란학기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웹드라마 제작사에서 인턴과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학과에서 배우기 어려운 실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파란학기를 시작할 때에는 '그냥 만드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작품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부분에서 성장했음을 느꼈다.



“힘들고, 바빴다... 그런데 뿌듯하다.”



박가현 미디어학과 14

‘미스터리 장르 게임 개발 및 출시’

2017년 2학기 파란학기에 참여하며 엄청 힘들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래도 마지막 학기를 뿌듯하게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 파란학기를 하며 진로를 새로 설정했다.



“실행·융합·소통·해결... 얻은 게 너무 많다.”



한채연 사회학과 16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홀 사물인터넷 개발’

2017년 1학기 공대생들과 함께 독거노인 응급안전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물인터넷, 3D프린터에 관심이 생겨 더 깊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전공 친구들과 같은 관심분야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파란학기로 얻은 것이 정말 많다. 아직 해보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파란학기제... 최고의 스펙이다.”



엄준영 소프트웨어학과 14

‘시간표 추천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7년 1학기 파란학기는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학점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외부 아닌 교내에서 갖게 되어 좋았다. 상반교 공채를 준비 중인데, 자기소개서 항목에 파란학기 경험을 빼려야 할 수가 없다.



“주도적 학습으로 ‘성공’했다.”



김성하 미디어학과 졸업

JYP엔터 재직

2017년 1학기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사 창업 및 페스티벌 개최' 파란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에서 배우는 이론적 학습 외에 더 큰 규모의 주도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여러 업무 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었고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경험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두려움을 줄이자!”



송다슬 심리학과 15

‘인행동 치료법의 대중화 및 책 출간’

2017년 2학기 파란학기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



“학교와 책의 울타리를 넘는 배움”



오주희 건축학과 15

‘제로에너지 하우스 설계 및 시공’

2016년 2학기 학교에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볼 수 있었다.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웠다.







특집 앙케트 인터뷰

# “우리 함께 Mars Campus로 출발합시다!”

- 2018 봄학기 임용 새내기 교수들의 나의 이야기와 새출발 다짐

- ① 본인 소개
- ② 학생들과 친해지는 나만의 방법
- ③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 ④ 미리 써 보는 정년퇴임 소회
- ⑤ 긴 호흡으로 해 갈 연구 분야는?
- ⑥ 못다한 말 한 마디

## “존중과 신뢰의 새로운 세계로-”

- '미래 인터넷' 연구

### 김도형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연구중점



①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많이 배우고 싶고, 오늘도 배우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지식 및 정보를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사랑한다” - 많이 느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② 제가 대학원 과정 동안 지도교수님께 배웠던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존중과 신뢰였습니다. 저희를 학생이기에 앞서 함께 연구하는 연구자로 존중해 주셨고, 충분히 신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어주신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는지, 큰 성과가 없고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즐겁게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배워왔고 경험했던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이제는 교수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학생들과 가져보고 싶습니다.

③ 20살 때는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즐거울까? 라는 질문과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고 보니 ‘나라는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 함께 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의 의미를 찾게 되네요. 과연 나는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아마 지금의 마음으로 20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의미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④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던 훌륭한 교수님들, 또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교직원 분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준 많은 젊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미안한 마음일 듯 하네요.

⑤ 우선 키워드는 “미래 인터넷” 입니다. 1969년에 미국 내 몇몇 학교의 컴퓨터를 연결하면서 시작된 인터넷은 50년 정도를 거치며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을 하였고, 현재는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기술들에 대한 한계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후반~2010년 초부터 미래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잘 갈려 있는 인터넷 인프라를 한번에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겠지요(비용 문제 및 기타 이해관계).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이 아직 완벽히 커버하지 못하는 무선 영역부터 미래 인터넷 기술을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 현재 인터넷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 네트워크에 관심을 두고 있고, 미래 인터넷 기술 기반의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⑥ 99학년도 학부과정에 입학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다시 모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과 많이 교감하고 함께 배움에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공부, 새로운 연구, 실용적 응용을”

- 나노-저차원 물질 개발 연구

### 유영동

화학학과 교수



① 저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화학분야에서 연구와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 전공분야 이외에 재료과학 및 나노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공부, 더욱 의미 있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주대의 일원으로서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물질에 관한 근본적인 화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실용적인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②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이 쉽지 않은 주된 이유는 아마도 학생과 교수 서로가 소통을 위해 별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여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개개인과와 상담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③ 다시 대학 신입생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저에게는 다시 교수가 되는 진로를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았으니 이번에는 사업가의 길을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이 나 희열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클 수 있기에 도전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④ 아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임용 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계획했던 새로운 나노물질 및 저차원 물질의 합성 및 응용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큰 결실을 맺어 아주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또 연구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이 모두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며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해주어 너무 행복합니다. 퇴임 후에도 아주대의 일원이었음을 잊지 않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⑤ 저는 새로운 나노물질 및 저차원 물질을 합성하고 그 물질들을 새로운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은 단결정 금속 나노와이어 및 나노플레이트를 합성하여 화학적 센서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박사 후 과정 동안은 저차원 물질을 합성해 전자 소자 및 광전자 소자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응용성이 더욱 큰 새로운 나노-물질 및 저차원 물질을 개발해 에너지 소모가 최소화된 고성능 전자소자, 구부러지는 태양전지 및 LED 등의 플렉서블 광전자소자,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등을 개발해나가고자 합니다.

⑥ 앞으로 많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에게 실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초의 아주대 화성 분교로-!”

- 생명정보학 연구

### 박대찬

생명과학과 교수



① 이름처럼 ‘대찬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연구합니다. 급격히 변화·성장하고 있는 유전체학 및 생명정보학 연구에 잘 맞는 이름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② 저도 아직 교수님이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학생이었으니, 학생들이 더 편하고 학생들과 더 가깝습니다. 지금처럼 여전히 학생처럼, 젊음을 유지한다면 학생들과 계속 가깝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③ 과학자, 연구자의 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때 연구 이외의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이후 후회 없이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군복무후졸공과외 아르바이트를 했고 장애인복지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도 근무했죠.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1주일에 한두 번은 거의 밤새고, 사격 동아리 활동하며 열심히 놀기도 했습니다. 다시 20세로 돌아가더라도 이러한 의도(?)를 통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탐색하며, 자연스럽게 진로를 정하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④ 제가 조교수로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아주대는 수원에 위치하여 세계 100위 권내 대학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두던 학교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국내 최초 화성(Mars) 분교를 건립하고 금성으로 본교를 옮기며 이제 우주 내 대학 100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좋은 성과를 이루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제 퇴임을 하여 지구로 돌아가지만, 아주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⑤ 저는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정보학의 매력에 빠져든 이유는 1)내가 가진 궁극증(가설)에 대한 검증할 수 있다는 점과 2)전문학적인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 유전체의 다양한 변이, 면역 세포의 다양성, 단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 등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체가 가진 다양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⑥ 아주대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으로 하루 25시를”

- 통계적 추론에 관심

### 안수현

수학과 교수



① 하루를 25시간 사는 사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고 하루는 정말 짧게 느껴져, 하루를 25시간으로 살기도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를 25시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함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은 값진 시간으로 여행을 하며 힐링합니다. 제게 여행은 하루를 25시간으로 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 저도 학생시절 교수님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참 어려우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인자 교수님께서 제 이름 한 번 불러주시고 외워주시면 정말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많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이름 외우고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③ 저의 진로 선택과정은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신입생 시절에는 시야가 좁은 만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컸고 결정도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결정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수월하여 늦은 결정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다시 신입생이 된다면, 다양한 세미나와 학회 등에 참석하여 시야를 넓히고 관심 분야 내 정보의 폭을 넓혀 진로를 보다 빨리 구체화시키고 싶습니다.

④ 어쩌다 보니 정년퇴임!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교육자이자 학자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인 것만 같은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켜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제가 오랜 교직 생활을 큰 과오 없이 보내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 여러분과 평소 저를 아껴주시 주위 모든 분,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덕분입니다. 오늘에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⑤ 아주대학교에서의 새 출발이 기다려집니다. 신입생처럼 새 학기가 격정되고 설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환경·조건의 압박에서 나를 잃지 않게”

- 영상사회학 연구

### 김한상

사회학과 교수



① 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생 때는 베를트르 브레히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고 영화 학회를 만들어 영화에 대해 토론하며 비평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일한 기간은 그런 관심이 학술적인 지향으로 구체화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② 학생들을 제 뜻대로 평가하거나 규정 짓지 않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학계에 몸 담고 있다 보면 마치 스스로가 학생들의 입장에 가깝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태도가 두 집단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내가 겪지 않은 경험을 한 다른 세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되도록 학생들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③ 제가 신입생이던 시절은 IMF 경제위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압박이나 고민이 덜했고, 취업 준비보다는 알고 싶은 것을 더 배우고 익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그런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 신입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의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의 자아를 잃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많은 이들의 길을 그저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도 잠시 멈춰 서서 사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요.

④ 아직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후회 없이 연구하고 살아왔다고 그리고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구상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즐겁게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⑤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 공유하고 있는 대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것이 어떻게 사회를, 그리고 그 사회 속의 개인을 구성했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몸 담고 있는 사회학의 한 분야, 영상사회학의 중심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제가 평생 가져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⑥ 학생들과의 만남이 많이 기대 됩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임용장 수여식에서

### “0.01%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 가능성 유기분자재료·합성 연구



**이인환** 화학과 교수

① 여행을 좋아하고, 매일매일 성장하길 원하는 청년입니다.  
 ② 역사사자- 제가 얼마 전까지 겪은 학생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업과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의무이자 학생들에 대한 예의이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대학 시절 진로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상담하고, 계획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량과 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결과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신입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고, 탐색해 보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④ 가끔 운동선수들의 은퇴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몸담은 일에서 물러나는 기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것,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느슨해진 나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뉴스에서 마지막 올림픽을 앞둔 이상화 선수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0.01%의 후회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⑤ 저는 유기화학에 기반하여 가능성 유기 고분자 재료를 정밀하게 합성하고 이를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⑥ 영화 <주토피아>의 OST 중 하나가 바로 'Try Everything'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듣다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전적 제목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주대에서 꿈을 품고, 그 꿈을 함께 도전적으로 펼쳐나기를 기대하고 다짐해 봅니다.

###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죠”

- 수처리 필터개발에서 설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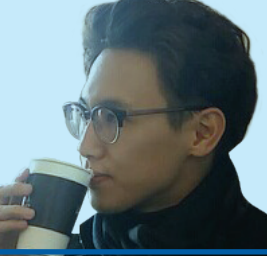


**이창구** 환경공학과 교수

① 저의 장점은 식상하지만 근면 성실함 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혹은 우둔함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결국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한국프로야구(KBO)를 즐겨보는 편이며 해마다 응원하는 팀이 바뀌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수원 KT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 수원 KT가 리그 탈 꼴찌에 성공하고 가을 야구에 도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② 제가 프로야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학위 지도 교수님께서 모 구단의 열혈 팬이셨던 것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위 과정 동안 같이 경기장을 직접 찾아 응원도 하고, 때때로 지난 밤의 야구 결과를 이야기하며 희의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통의 관심사는 학생과 교수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외적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간다면 연구에서도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주대는 축구팀을 가지고 있는데다 인근 수원삼성 프로축구 구단과도 마주하고 있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관심사를 함께 하기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 삶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재의 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다시 20세로 돌아간다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함께 방황하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식상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노력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트를 꺼내어 고민을 적어보고 그 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로 구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막연하기만 하던 진로의 길이 서서히 보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등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계획은 변경되기도 때로는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큰 계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지금 이 글을 쓰던 시작의 순간이 다시 한 번 기억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 동안 근면 성실히 살아왔는지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다가갔는지, 계획은 얼마나 이루며 살아왔는지 돌아볼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아쉬움도 남겠지만,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다”라고 소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⑤ 저의 연구 분야는 환경소재의 수처리 적용 분야로 작게는 수처리 필터 개발에서 크게는 수처리 기술 설계에 해당합니다. 관련 기술은 대부분 완성단계로 추가적인 기술 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보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저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⑥ 캠퍼스에 꽃이 찾아오는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 이 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분 좋은 새 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 “교수는 들어주고, 해결 돕는 사람”

- 혁신적 건축설계 방식 연구



**이항** 건축학과 교수

① 박사를 마치고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약 1년 반 교수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 아주대의 차분하고 정갈한 캠퍼스, 워랄까 건강한 담백함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 성격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는 기대 또한 큼니다.  
 ② 경험상 하나의 작은 수업이라도 학생 각자의 목표가 다르고 교수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수는 자신의 학생 때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그 정도 수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도우미와 같은 존재이지요. 너무 편하게 대해서도 안되겠지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긴밀하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저부터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민에 먼저 더 다가가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③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스스로 개척할 수 밖에 없었던 제 20대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사정과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다른 과에 들어갔다 중간에 제 의지로 건축과로 옮겼습니다. 그 시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데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안전한 미래를 찾기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④ 연구실을 거쳐간 제자들, 수업을 들었던 학생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제 분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퇴임 후에도 종종 제자들과 만나 커피 한잔 나누며 지나간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그들의 삶과 진로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⑤ 저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구상하고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주로 하는 건축학(건축 설계와 계획)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흔히 그림만 그리는 예술적인 작업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것은 건물의 전체적인 생김새부터 세부적인 공간 배치와 재료 사용, 그리고 기계와 시공기술 사이 최적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 복잡한 일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건축 설계 과정의 자동화 및 지능화, 새로운 재료와 형태를 이용한 혁신적인 건조 방식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센서, 스마트 재료, 로봇 기술을 활용한 움직이는 건물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실내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건물 형태 및 건축 디자인 과정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 가슴 한 구석이 뛰고, 살레는 일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길!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압박감 속에 좌절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반대로 지나친 우울감에 젖어 교만한 생각에 젖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좌절과 자만, 이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고 나의 현재, 그리고 실력만이 기회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믿으세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은 없지만, 세상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결국 기회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때나 시행착오는 성공을 위해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나아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 “양자점 기반으로 미래 밝히는 빛을”

- 차세대 발광소자 연구



**임재훈** 화학공학과 교수

① 지난 10여년 동안 양자점이라는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양자점은 수 나노미터 수준의 지름을 가진 반도체 나노입자로, 크기를 조절해 순수한 빛을 다채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소재인데요. 요즘은 TV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것은 빛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단색광이 정제되어 나온 순수한 빛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빛을 소재로부터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왔죠. 이런 저를 보고 주변 친구나 동료들은 “당신은 정말 nerd야” 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한번 쯤은 관심이 있으면 전력으로 몰두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듣나 봅니다. 빛에 대한 호기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아주에서 학생들과 함께 양자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를 발전시켜나가고 싶습니다.  
 ② 교수와 학생의 간극은 좁히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고등학교의 선생님과 제자 관계와는 달리 공유하는 시간이 정말 적고, 이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은 단순한 교육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남게 되겠죠. 사실 뽀족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다만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저를 편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하루에 커피를 두 잔 이상은 항상 마시죠. 오빠에 찾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수업 중 궁금증도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담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마실 좋은 커피와 커피머신을 준비해 둘게요!  
 ③ 고백하자면 대학 시절, 뚜렷한 진로를 세우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끝나서 좋았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즐거움만 있었어요. 다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 몰두할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는 거죠. 20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외국에서의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지난 삶에서 저는 다행히 연구라는 재미를 얻었지만, 제가 몸담았던 학교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든요. 박사학위 중 독일에서 짧게나마 살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야 비로소 세상이 정말 넓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혹시 모르죠. 제가 대학교 때 독일에서 지내왔다면 지금은 수제맥주집 사장님을 하고 있을지?  
 ④ 지난 30여년간 아주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노력이 우리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⑤ 저는 지금까지 ‘양자점’이라는 전자소재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에서 학생들과 함께 양자점 기반의 차세대 발광소자 및 소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연구는 사물을 더 진짜같이 표현하는 고품질 디스플레이나 상황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마트 조명 등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용 또는 의료용 광원 개발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⑥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 학점부터 진로까지 고민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요. 엄청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도 가끔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젊음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스펙만 쌓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는 20대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 “아주가 저를 빚어냈듯, ‘미래’를 빚어내겠습니다”

- 새로운 세대의 무선네트워크 연구



**Paul Rajib**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교육중점

① “가르치는 일은 매우 고귀하다. 개인의 성격과 자질, 미래를 빚어내는 일이기도. 만약 사람들이 나를 좋은 선생으로 기억해준다면, 내게는 엄청난 영광일 것이다(인도 전 대통령 압둘 칼람)”  
 아주에서 새로운 직책을 시작하는 저는 이 곳이 매우 익숙합니다. 아주 동문인 제가 자라온 곳이기도 하니까요.  
 ② 아주에서 학생, 조교, 연구원으로 일하며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제 철학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묻고, 탐구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더 나은 청자, 화자, 그리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질문하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궁금증이라도 제 연구실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권합니다. 종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③ 어린 시절,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지는 않았습디다. 아주에서 공부하며 ‘학자’라는 꿈을 점차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서는 제가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교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이에 스스로의 진정한 꿈을 찾거나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완벽한 길을 꿈꾸며 그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뭔가를 실제로 시도 해본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④ 저는 그동안 제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20년 전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있는 자리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년 뒤의 일에 대해서도 선뜻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달아있는 환경에 설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이곳에서 제 지평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⑤ 제 연구 관심 분야는 4G 무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아키텍처, 인지 무선 네트워크, 무선 리소스 관리 및 장치 간 통신 등입니다. 이중 무선망 환경(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HWNs)에서 특정 위치의 사용자는 LTE, WiFi 등 여러 경로의 액세스 기술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량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5G의 길을 열고 있고, 저는 이런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⑥ 아주 동문으로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연구하는 아주의 연구 그룹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예멘에서 세계적 학생과 연구 찾아 아주로 왔어요”

- 모터 및 일렉트릭 드라이브 연구



**Ibrahim Mohd Ali Alsolfyani** 전자공학과 교수 / 연구중점

① 저는 예멘에서 태어나 자랐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원과 연구원, 박사후 과정을 마쳤습니다. 전력전자와 일렉트릭 드라이브가 제 연구 분야입니다. 전기 자동차나 비행기, 지하철과 같은 산업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 향상과 복잡성 감소, 그리고 동적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② 학창시절, 지도 일부 교수님들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로서의 저는, 늘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직언이 라기 보다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합니다. 지식이나 여러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③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글썄요. 사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Dream Job’이라는 것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죠.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자동 제어’ 분야에 중점을 둔 공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기술을 깊이 탐구하고 싶었고, 그러한 생각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④ 아주의 교수진으로 합류한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학생들, 그리고 연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의 학생과, 교수 스태프 보다 더 좋은 동료로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제 연구 분야는 전기차와 항공 우주 철도, 선박 및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여러 산업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터 및 일렉트릭 드라이브입니다. 적절한 모터 드라이브를 설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모터를 만들기 위해 연구해 왔습니다.  
 ⑥ 아주 가족들과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SNS로 학생들과 通!”

-환경·축매·에너지 연구



#### 이제찬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 ① 저는 화학공학·환경공학을 전공하였고, 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화학공정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 ② 요즘은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글로 대화하는 것이 더 보편화되다 보니, SNS를 활용하여 소통하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③ 다시 신입생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대학원 진학 후 교수가 되는 길을 택할 것 같습니다.
- ④ 건강히 정년을 맞게 되어 뿌듯하고 보람될 것 같습니다.
- ⑤ 환경, 축매, 에너지 분야입니다.
- 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바위같은 꾸준함으로”

-노인성 정신질환 모델링과 맞춤형 의료



#### 손상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 ① 제 모토를 소개하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Think Big, Start Small, Move Fast.
- ② 제 전공 분야인 정신의학은 여러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있으며, 의학뿐 아니라 심리학, 공학, 인문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와도 연관성이 많은 분야입니다. 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실이나 강의실뿐만 아니라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③ 인문학적 소양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 ④ '바위 같은 꾸준함으로 기억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통찰적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연구 주제는 "관계"입니다.
- ⑤ 치매, 우울, 불안, 불면, 자살 등 노인정신의학 세부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적 자료뿐만 아니라 뇌 영상, 유전체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노인정신질환 모델링을 통한 맞춤형 의료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⑥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학술적인 성과 뿐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교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우직하게”

-난치성 통증질환 연구



#### 최종범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

- 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사람(에디슨 같은?). 장점은 우직하다는 것, 단점은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애가 셋이고 집이 멀다(일산)는 점. 관심사는 통증 분야 중 난치성 통증 치료이고, 통증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② 학생들에게 말을 많이 걸고, 실수나 잘 모르는 부분도 다 이해해주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하지만 예의 없는 학생은 싫어요. 인간관계에서는 '태도가 중요한 듯 합니다.'
- ③ 술 먹고 놀 시간에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 때 건강이 안 좋아 많이 고생했어요.
- ④ 65세,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아쉬울 것 같고, 연구의 기회가 더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날까지 연구!연구!! 연구!!!
- ⑤ 하고 싶은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만, 일단 제 분야는 마취통증의학과 내 통증 분야입니다. 통증 분야에서도 난치성 통증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이 두 가지가 평생 과제이고요. 체열 관련 연구나 통증 조절 기구 연구 개발에도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 ⑥ 하고 싶은 연구가 많아요. 열정을 다해 달려보고 싶습니다.

### “뚜렷한 목표와 관심”

-소아 비침습적·효과적 진단



#### 김현지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

- ① 고지식하게 성실한 사람. 재미는 별로 없는 사람.
- ②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 존중하며 대하는 것.
- ③ 결국은 지금의 이 길로 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와 관심 분야가 비교적 뚜렷한 사람입니다.
- ④ 학술 및 교육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소외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 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비침습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진단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영상의학의 흐름대로라면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평생의 연구 주제를 지금 정한다는 것은 아직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⑥ '아주 가족'이라는 말이 좋네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④

### “이주에서 함께 새출발 합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 김도형** 소프트웨어학과, 연구중점
- 김재현** 경영학과
- 김한상** 사회학과
- 박대찬** 생명과학과
- 안수현** 수학과
- 유영동** 화학과
- 이인한** 화학과
- 이제찬** 환경안전공학과
- 이창구** 환경안전공학과
- 이 황** 건축학과
- 임재훈** 화학공학과
- Ibrahim Moh Alsofyani** 전자공학과, 연구중점
- Paul Rajib** 소프트웨어학과, 교육중점
- 김현지**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 박범희**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 박선아**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박은정**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 손상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 신유섭**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학교실
- 안정환** 의과대학 응급의학과교실
- 이한동**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정우영** 의과대학 호흡기내과학교실
- 정유리**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 최종범**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 한미란**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 허중연**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 본교 의대 각각 기.대.순

어떤 꿈은 지워지지 않는다  
 '실패'가 나의 전공이다.  
 '새 출발'이 나의 부전공이다.  
 좋아서 흘린 땀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주에서 배운 것은 이것.  
 당신의 성공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실패를 지켜줍니다.  
 아주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젊음의 창업과 함께 합니다.





세계로 가는 새 출발



작은 배려, 큰 사회\_ 파란사다리 (“AFTER YOU”)

어려운 환경 탓에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각 4주씩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집중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도 가능하다. 미국 미시간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워싱턴대학과 중국 북경이공대학, 상해교통대학으로 학생들을 파견한다. 참가 학생 선발 시 학점이나 영어 성적 보다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본다. 참가 신청 및 선발은 학기 중 진행된다. 아주대는 교육부 ‘파란사다리’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AFTER YOU”를 ‘파란사다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국제교류팀(031-219-2926)



세계로 가는 유쾌한 반란\_ Global Internship Program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 BMW와 CKP(미국 최대 아시아계 회계법인), H마트(미주 최대 아시아인 마트) 뿐 아니라 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같은 기관과 연계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한 단기 인턴십부터 최대 1년 간 근무하는 중장기 인턴십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파견 국가와 기업, 직무가 다채로워 참가자 선발도 상시로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학점도 인정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제회사팀(031-219-3520)



세계가 우리의 캠퍼스\_ 교환학생제

아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해외 대학에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수학하는 프로그램. 아주대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해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아주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숙사비나 식비는 상대 학교에 납부한다. 통상 5월 중순, 11월 중순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아주대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교환 학생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어학성적이 필요하다. 재학 중 정규 교환학생은 최대 3년까지 파견 가능하다. 선발은 학점과 어학성적, 면접을 반영해 진행한다. 문의: 국제교류팀(031-219-2926)



미국 명문대 학위를 동시에\_ 복수학위제

아주대에서 일정 학점을 수료하고, 상대 교에서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두 학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재 미국 2개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스톤브룩대학(SUNY-Stony Brook University)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일리노이공과대학(Indiana Institute of Technology)이 대상학교다. 상대 학교에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를 납부한다. 복수학위생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있는 경우 본교 등록금은 장학처리(면제)되고 매 학기 학적유지비만 납부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해외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 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 문의: 국제교류팀(031-219-2926)



해외에서 보내는 방학\_ 단기 파견 프로그램

방학 기간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 진행되는 단기 여름 학교 또는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4주 진행되며 프로그램 비용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자매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 시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는다. 영어권 국가와 유럽권 국가, 일본·중국 대학 등으로 갈 수 있다. 학기 중반에 다음 방학 기간 중 파견될 학생을 선발한다. 문의: 국제교류팀(031-219-3314)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_ 파란학기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수행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본격 도입했다.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 프로그램을 설계·신청하거나 이미 마련된 교수·학교 제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학기가 끝난 직후 다음 학기 참가신청을 받고 계획서 심사를 통해 참가 여부 및 도전 학점이 최종결정된다. 신청 기간 중에는 파란학기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컨설팅 시간도 마련된다. 도전과목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A/B/F)로 진행된다. 문의 : 대학교육혁신원(031-219-3380)



현장이 캠퍼스다\_ 현장실습 선실습 후강의제

실무 능력을 쌓고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국내의 산업 현장 실습 교육. 3~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16주 이상 참여해야 정규 학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방학기간에는 최소 4주(3학점), 최대 8주(6학점) 실습에 참여한 뒤 학점을 받는다. 학기 중 참가 신청을 받으며 파견 가능 기업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를 미리 체험함으로써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2017년 1000명 이상이 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현장실습에 임했다. 아주대는 관교-광교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LINC 현장실습지원센터(031-219-1779/3937)



취창업 진로 책임 서포터제\_ Cheer up Change up

아주대 학생이 첫 직장·직업을 찾을 때까지 ‘학교가 공동 책임을 진다’라는 철학으로 시작한 취업지원 프로젝트.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진로설정 워크숍 ▲전공별 진로 멘토링을 통해 적성과 직업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매주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진로지도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학, 직업, 인생 ▲다중지능검사와 직업 ▲나의 생애 정리하기 등이 1학년에 해당하는 주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취·창업과 관련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상담을 통해 진로 상담, 입사지원서 첨삭, 모의 면접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및 채용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그 밖에도 전문 상담사들이 매주 진행하는 ▲한 꼭지 특강과 선후배 간 교류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쾌한 멘토링을 운영한다. 3월 한 꼭지 특강은 ▲복수전공 선택법 ▲기업분석 ▲글쓰기 특강 ▲대학일자리센터 100% 활용하기 ▲입사지원서 작성법이 마련됐다. 유쾌한 멘토링은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대학일자리센터(031-219-2042)



소신을 결실로\_ 창업지원

<기술창업과 경영>, <소프트웨어 창업론>, <발명과 특허>, <기업가 정신과 경영> 등의 정규 과목을 개설해 두고 있다. 더불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 동아리 조직과 운영을 지원한다.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특허 출원, 경진대회 참가, 창업 전문가와의 교류도 지원한다. ▲아주창업캠프 ▲창업아카데미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데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LINC 창업교육센터(031-219-1777)

새 출발의 동반자



도움이 필요할때\_ 아주지원센터

각종 증명서와 학생증 발급, 군 관련 휴·복학 서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사물함 신청과 분실물 센터 운영도 맡고 있다. 캠퍼스와 빌 프로젝트 대어, 프리젠테이션에 사용하는 무선 리모콘 대어 등도 가능하다. 신학생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아주지원센터(031-219-1541~4)



건강이 소신을 지킨다\_ 보건진료소

응급약품이 필요하거나 건강 상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신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단한 진료를 받거나 안정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 대상 신체검사(연1회), 독감예방접종(연1회)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학술답사, MT 등)에 한해 구급약품상도 대어한다. 문의: 보건진료소(031-219-1596)



마음의 건강에서 소신이 나온다\_ 아주상담센터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정신 건강을 위해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신학생회관 412호)에 신청할 수 있다. 1대1 상담은 주 1회, 각 50분 동안 실시한다. 집단상담은 방학 중 진행되며 사전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집단 상담은 주 1~2회,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상담센터에서는 MBTI 성격유형검사를 비롯한 성격 관련 검사와 진로 및 학습관련 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심리검사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문의: 아주상담센터(031-219-2191)

새 출발 특집 "AFTER YOU" 소개



396 명 파견학생수  
422 명 기부자 총인원  
17 억원 기부금 납입액 / 3년 6회

국제대학이 대를 잇다... "그 친구를 보내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031 219-2035/2923

"AFTER YOU" GLOBAL CAMPUS 2016 SUMMER

"그 친구를 보냈더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031 219 2171 / 2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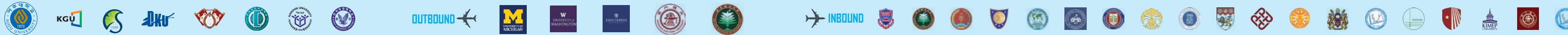
"AFTER YOU" 프로그램 2017 여름 아주글로벌캠퍼스

"그 친구를 보내자!" "그 친구를 맞이하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University of Washington  
Johns Hopkins Universit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031 219 2171-2

"AFTER YOU" 프로그램  
AJOU GLOBAL CAMPUS



# 봄 바람 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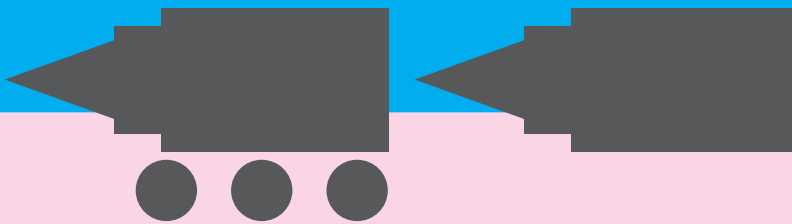
"AFTER YOU 프로그램"은 여러 어려움 탓에 해외 경험을 쌓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주대가 시작한 집중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학생 선발은 꿈과 의지를 최우선으로 해 이뤄지며 학생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기부금으로 마련해왔다. 2015년 여름부터 하계-동계 방학 기간 4주 동안 진행되어온 이 프로그램은 미국 미시간대, 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와 중국 상해교통대, 북경이공대에서 열렸다. 아주대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 타 대학 학생들도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지난 여름에는 "인바운드 AFTER YOU 프로그램"을 시작, 아시아 지역 자매

대학 학생들을 아주 캠퍼스에서 교육했다. 아시아 10개국 17개 대학에서 선발된 28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여러 문화 체험에 참가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부터 아주대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파란사다리 사업'을 설계해 취약 계층 대학생들의 해외 경험 쌓기를 지원한다. 아주대는 '파란사다리 사업'의 수도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 동안 "AFTER YOU 프로그램"을 '파란사다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2017 Autumn Vol.21



#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새 출발 특집 "AFTER YOU" 소개



"AFTE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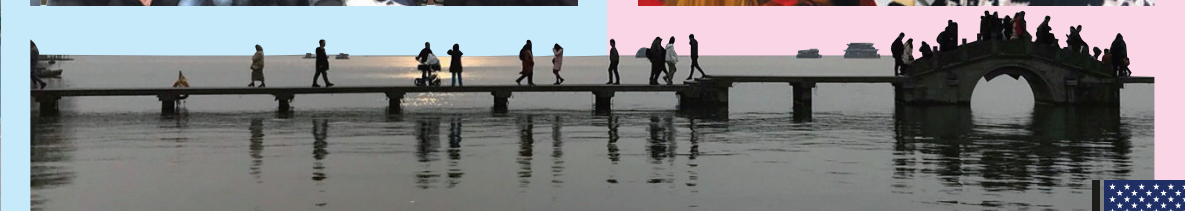
"AFTER YOU" 프로그램

## AJOU GLOBAL CAMPUS



### 2017 겨울 아주 글로벌 캠퍼스

"AFTER YOU 프로그램 - 아주 글로벌 캠퍼스"의 열기가 중국 상해에서 이어졌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학생 30명이 중국 상해교통대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참가자들은 1월3일부터 4주 동안 상해교통대학교에서 중국어 집중 교육을 받았다.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접하고, 여러 체험에도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주대학교 학생뿐 아니라 인근 대학인 한국항공대, 성결대, 한국외대, 경기대, 신한대에서도 6명의 학생이 함께 했다.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주어졌다.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 학문의 생활화 생활의 학문화

# 데이터사이언스 - 얼마나 새로운 학문인가? 혹은 얼마나 오래된 학문인가?



정재훈 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데이터가 화두인 세상이다. 근자에 와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혹은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들과 어울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맥킨지앤드 컴퍼니(McKinsey & Company)는 2018년(올해)까지 미국에서 400만~ 500만개에 달하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찌감치 내놓은 적이 있다[1]. 전세계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학과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큰 유행이 되어 현재 약 500여개의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이 세계 각 나라의 대학에 흩어져 있다 [2]. 더불어 미국의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확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하도록 매우 적극적인 유인작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학자들이 자신과 동떨어진 분야의 연구자들과 참신한 융합적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하면, 그러지 않아도 연구비 수준이 자극히 낮은 요즘의 미국에

서, 연구비를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3].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예전 컴퓨터 사이언스가 태동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막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만들어질 때처럼 마치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학문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 'Data Science'라는 말이 현대적 의미로 대중화된 것은 John Tukey 이래로 [4] 1997년 미시간 대학교의 C.F. Jeff Wu 교수가 컴퓨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을 아울러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 때부터였다.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그동안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론과 응용에서 기하급수적 진화를 해왔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의 오늘날의 용법, 최소한 2018년의 용법으로 따져 보자면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통계학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 둘 혹은 다수의 결합도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은 기존에 존재하던 어느 개별 학문의 트랜스포머적 변신을 의미한다. 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knowledge extracting), 새로운 종류의 학문임을 암시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르기도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래서 연관성이 모호하거나 혹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 혹은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위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관계들과 법칙에 대한 새로운 지식, 그 전에 미처 몰랐던 그 지식들을 도출해 내는 통찰력이고 그 방법론이라고 가칠게 정의를 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도출한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며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가는 그 지식 만큼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간파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인공지능이나 기계언어 혹은 고도의 통계 계산과 같은 장치적인 개념, 도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진정한 면모를 이해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 중 하나는 누구든 원하면 학원 혹은 대학의 단기 프로그램에 찾아가 필요한 기술들을 손쉽게 그것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기계학습이든 인공지능이든 R이나 Python 프로그램이든 통계분석 기법이든 상관없다. 짧게는 한달이라는 시간과 돈, 그리고 지독한 성실함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연관성을 실마리로 세상살이의 크고 작은 운동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적 개념을 넘어 동떨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는 융합적 통찰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매우 오래된 학문이고 그 기본 원리와 소양 역시 매우 낫고 오래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즉 휘어진 공간에서의 기하인 미분 기하학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은 미분기하학을 만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전에 만들어진 수학을 이용했을 뿐 새로운 수학을 개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연결한 그의 통 큰 상상력과 융합적 창의성에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변환한 기존의 리만 텐서에 중력을 일으키는 에너지 원을 오른쪽에 위치시키면서 미분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중력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후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실험을 했고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2016년 2월, 드디어 나사(NASA)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파를 발견했노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 쓰인 데이터는 방대하다 [6]. 뉴튼은 어떠한가?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지상에서의 이치와 달이 운행하는 천체의 운행 이치가 동일하다는 융합적 사고를 했고 중력 법칙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이 시행되었고 방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예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튼 그리고 빅데이터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천문학을 넘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오래 전부터 수도 없이 발견된다. 지금에 와서는 지식보다 데이터가 먼저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숨은 지식을 도출하는, 순서가 바뀐 형태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우리에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만약 데이터가 충분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사고실험(Gedankenexperiment)이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론을 추론했 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상에서 이론을 융합해 내고 그 후 검증을 위해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지금은 먼저 산재한 데이터를 있고 바느질하여 우리가 종전에 연구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의 속성 상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산업화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완벽한, 그토록 아름다운 지식을 도출해 낸 과학자는 아마도 케플러가 아닌가 싶다. 그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Tycho Brahe)가 맨눈으로 관측하여 남겨놓은 방대한 천문기록, 즉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에서 그는 과학사에 빛나는 위대한 발견을 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가히 데이터 사이언스계의 슈퍼스타라고 할 만하다. 또 다른 슈퍼스타 설록 홀츠가 활용한 추론의 방식 역시 다른 아닌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형이다. "Data! data! data!" he cried impatiently. "I can't make bricks without clay." [7] "I had," said he, "come to an entirely erroneous conclusion which shows, my dear Watson, how dangerous it always is to reason from insufficient data." [8] 이렇게 볼 때 데이터 사이언스는 오히려 오래된 학문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야 할 매우 기초적인 기본소양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하면 그것 역시 자명한데 그것은 기계와 공학적 지식이라고 보다는, 상상력을 겸비한 창의성과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들을 연관시켜내는 통찰력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가 항상 다른 의미 뒤를 쫓아갈 때가 아니라 앞서가는 팔로워(follower)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최전선을 이끄는 팔로워(followee)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럼, 팔로워가 아닌 팔로워가 되는 통찰력과 창의성은 어떻게 습득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었으나 한가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즉, 항상 데이터의 관점에서 제한과 분야와 경계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되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골똘히 고민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창의성과 통찰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어의 정신처럼 창의성이란 본래 사람의 봉사하려는 마음에서 극대화된다. 그럼 전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수많은 음성학적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이롭고도 위대한 한글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군주가 자신의 백성에게 쉬운 문자를 만들어 주는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방법을 골똘히 고민한 나머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아마 세종대왕 자신도) 글자 창제라는 매우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현재 UN에서 시도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이나 [9] 어느 대학생이 수업시간 프로젝트로 만든 자폐아 판정을 위한 간단하지만 매우 획기적이고 강력한 앱 [10] 등이 그런 것일 것이다. 기실 '백성을 사

랑하는 마음'은 창의성을 위한 덕목일뿐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가 과학과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대중들을 속이며 파행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장치일지 모르나 [11].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영국, 혁신과 발명의 시대의 공리주의자 그렛 그리핀드는 어린 씨씨에게 물어본다. 경제학의 제1원리가 무엇이라고.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대답을 원하던 그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씨씨는 '경제학의 제1 원리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는다 [12]. 그 당시 영국을 세상의 선두 주자로 만들어 주었던 발명과 혁신이 만약 씨씨의 경제학 원리를 따랐더라면, 한없이 치솟는 생산성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했던 도무지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하고 서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들과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이 빚어내는 영상과 숫자들로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로 곰곰이 살펴보면, 그것들을 자신의 주변과 사회 그리고 통일될 한반도와 틈이 연관시켜보는 것. 그러다가 가끔씩은 시선을 멀리하고 혹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세먼지가 심해 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너머 반드시 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발상을 해보는 것. 이러한 일련의 생활 속 연습은, 비록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거기에 세종대왕과 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까지 간직한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에 적합하다. 더불어 건 강한 융합적 창의성이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요즘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매일 듣다시피 하며 살고 있다. 나라의 거의 모든 구성원과 산업체 그리고 학교가 그 물결에 밀려 한없이 요동치고 있다. 그것이 비록 새롭고 혁신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지향해야 할 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소양은 자극히 오래되고 자명한 것임에 틀림없다. 마치 데이터 사이언스가 얼핏 신종 학문인 것처럼 보이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고전적인 학문이다. ●

[1]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digital-mckinsey/our-insights/big-data-the-next-frontier-for-innovation>  
[2] <http://datascience.community>  
[3] 예를 들어서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Computational and Data-Enabled Science and Engineering (CDS&E) 이나 Critical Techniques, Technologies and Methodologies for Advanc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Big Data Sciences and Engineering (BIGDATA)과 같은 프로그램  
[4] John Tukey의 1962년 논문 "The Future of Data Analysis". David Donoho의 "50 Years of Data Science",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Graphical Statistics, 26, 745-766 (2017)을 참고. Tukey는 Fast Fourier Transform의 발견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5] [https://en.wikipedia.org/wiki/C.\\_F.\\_Jeff\\_Wu](https://en.wikipedia.org/wiki/C._F._Jeff_Wu).  
[6] <https://www.nasa.gov/feature/goddard/2016/nsf-s-ligo-has-detected-gravitational-waves>  
[7] Arthur Conan Doyle의 단편 The Adventure of the Copper Beeches (1892) (너도밤나무 집의 비밀)  
[8] Arthur Conan Doyle의 단편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1892) (얼룩끈의 비밀)  
[9] <https://www.unglobalpulse.org/about-new>  
[10] <http://www.nydailynews.com/life-style/health/smartphone-app-screened-autism-94-accuracy-article-1.2872981>  
[11] Cathy O'Neil,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Broadway Books, NY, 2017. (대량살상 수학무기: 어떻게 빅데이터는 불평등을 확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12] Charles Dickens의 소설 Hard Times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Thomas Gradgrind과 Sissy Jupe의 대화

Dream High Think Big Act Now

Ajou Quarterly Magazine 2018 Spring Vol.28

세상의 다양한 서로 다른 현상들과  
그 관계들이 빚어내는  
-영상과 숫자들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비판적 사고로 살피고,  
나와 사회와, 예를 들어 통일 한반도와  
연관시켜 보는 일, 문득 밤하늘 별을 보는 일,  
거기에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그러면 훌륭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공 소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미래로 나는 하늘의 IT전문가가 되자



**임재성**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교수

디지털 기술은 지난 20세기 후반에 걸쳐서 IT기술 즉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왔고 지난 수년 동안 IT융합의 핵심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녹아 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하나로 엮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장 환경은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육지, 바다, 공중, 우주 공간의 모든 무기체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IT 융합의 획기적 능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사이버전, 드론전 등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과학기술로서 국방IT기술의 중요성은 수 백 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에는 이름부터 조금 생소한 아주 특별한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디지털융합학과(국디지털학과)입니다.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 혁명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색다른 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과 직업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공부할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하면서 직업을 정해 취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디지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공은 국방IT로, 직업은 공군장교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디지털과는 공군과 아주대가 최첨단 무기체계의 운용과 개발 능력을 갖춘 IT기술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계약학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생들은 아주대와 공군비행단에서 동시에 입시를 치릅니다. 국디지털과 입학전형은 ▲국방IT전형1(수시 20명) ▲국방IT전형2(정시 10명)로 구분됩니다. 1차 선발된 학생들은 수원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체력검사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오레 달리기 3종목인데 수험생들은 그중 오레 달리기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아주대 교수와 공군장교가 함께 진행하는 면접에서 전공 학업역량은 물론 국가관, 리더십 등 공군장교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게 됩니다.

셋째, 학생들은 일반 IT 과목과 국방 특화 과목을 동시에 수강합니다. 공군기술장교에게 요구되는 국방 및 항공우주 분야의 IT기술 교육을 위하여 국디지털과는 일반 IT기술로 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교과목을 지정하고 별도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 공합니다. 공군특화 교과과정은 ▲공군장교소양(항공이론 등) ▲공군 ICT기초(국방ICT시스템, 레이더시스템 등) ▲공군 특화기술(전술데이터링크, 항공SW 등)로 분류됩니다. 국디지털과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간 중단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전원 소학회 '탑간'에 가입해 활동합니다. 4-5명이 한 팀이 되는데 선후배 팀들이 멘토와 멘티가 되어 드론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교류합니다. 매학기 <아주국방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매년 '탑간 드론 경진대회'에서 팀간 실력을 겨룹니다.

넷째,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군장교 소위로 임관합니다. 졸업생들은 정보통신병과 등 IT기술을 다루는 병과에 배속되어 "하늘로 우주로" 구호와 함께 최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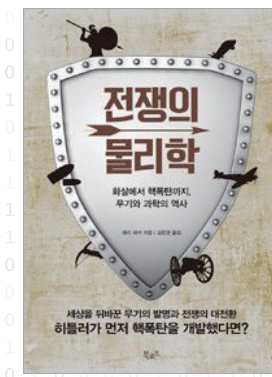
디지털 융합 혁명 견인하는  
국방 IT기술

정보 IT산업, 4차산업 혁명으로  
갈수록 중요해져



\*F-35(통합타격전투기)  
개발 비용 356조원의 F-35, 그 자신 레이더도 피하는 스텔스지만 F-35 설계 프로그램이 감쪽같이 해킹당했다. 현실과 가상의 IT전문가들의 필요성은 상상 이상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이해를 위한 입재성 교수의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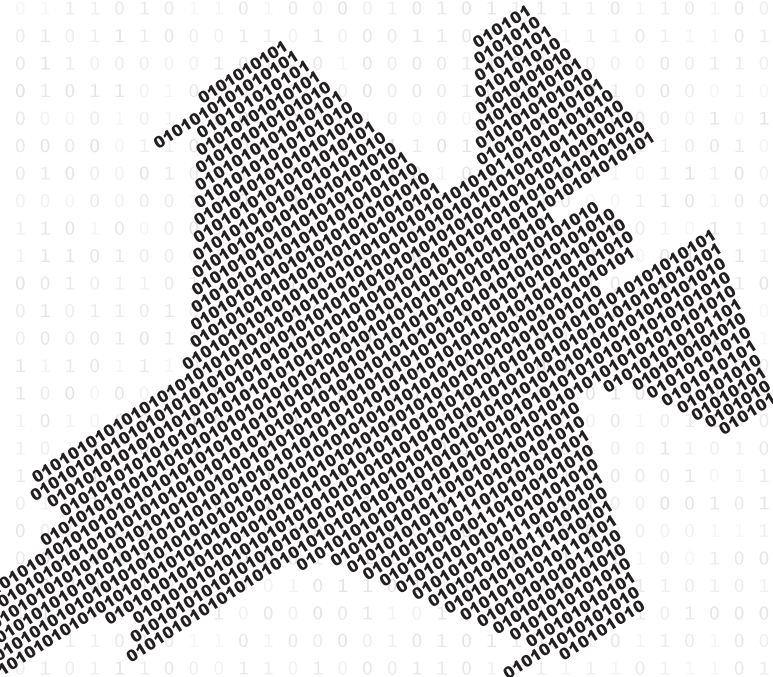


#### <전쟁의 물리학>...돌맹이에서 레이저까지 물리학과 전쟁사의 흥미진진한 공부

최근 우리는 한반도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무기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드,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그 능력이 엄청난 무기들인데 세계 초강대국들은 이러한 첨단무기의 확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현대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고려하면 승자도 패자도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최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로부터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져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한 병사들에게 신무기 사용법을 잘 교육하는 국가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온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신무기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왔는데, 특히 현대무기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작용했지만, 그 바탕에 물리학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주대 국디지털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국가안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책은 <전쟁의 물리학>입니다. 원제가 <The Physics of War: From Arrows to Atoms>인 이 책은 이론 물리학을 전공한 아이다호 주립대학교 배리 파커(Barry Parker)교수가 쓴 책입니다. 전쟁 역사와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쓰임새를 물리학 이론과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로 풀어서 흥미롭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역사적으로 전쟁을 바꾼 신무기들, 신무기 탄생을 가져온 물리학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화약과 대포, 총알과 대포알의 원리 탄도학, 공기역학을 이용한 군사용 항공기,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 전쟁을 끝내버린 원자폭탄의 탄생 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국가들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미래 등장할 신무기들과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등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 <보이지 않는 전쟁>...F-35 설계 스파이 해킹 군사-인터넷 복합체 등 통찰력 있는 분석

사이버공간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만들어내는 가상세계로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이라 하였습니다. 사이버전이란 적군의 사이버공간 취약점을 탐지해서 사이버공격을 가해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아군의 사이버공간은 적군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NCW(network centric warfare)로 지칭되는 네트워크중심전은 모든 무기체계들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승리를 달성하자는 작전수행 개념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중심전 환경은 군사작전을 펼치는 사이버공간이라 할 수 있었고 근본적으로 사이버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기동작전에 이용되는 작전망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파교란과 같은 사이버전작전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두 번째 책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원제는 <@War: The Rise of the Military-Internet Complex>입니다. 저자 셰인 해리스(Shane Harris)는 10년 이상 사이버보안 및 전자감시 분야를 취재해온 미국 언론인으로, 이 책을 쓰기 위해 국가 관료와 군부인사, 기업 경영진, 전문가, 활동가 등과 1000번이 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F-35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복잡한 무기체계로, 전체 개발비용이 3370억달러에 달할 만큼 값비싼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누군가 F-35의 핵심 기술과 설계 정보를 훔쳐 갔으나 몇 달 동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이버 스파이에 의해 F-35 프로그램이 해킹 당한 다음이었습니다. 저자는 미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국(NSA)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초기 사이버전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NSA 국장이었던 케이스 알렉산더는 NSA의 임무가 전통적인 신호정보(SIGINT) 수집에서 인터넷상 모니터링 영역으로 옮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NSA는 미국 산업의 모든 측면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IT기업들과 연대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사이버전쟁을 수행할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후반부는 민간 산업체들이 어떻게 정부를 넘어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군사산업복합체(군사-산업 복합체)의 출현을 경고하였듯이 군사-인터넷 복합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최대의 군수업체는 세계 주요지역에 사이버감시 센터를 설립하고 전 세계 컴퓨터와 서버들의 네트워크를 지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방어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역사적으로 국가안보는 언제나 정부의 몫이고 배타적인 영역이었지만,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부기관과 군 그리고 대규모 인터넷 IT산업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적에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최선의 역할분담 방안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원 국방 IT 전문가,  
공군장교로 가는  
국내 유일 아주대 국방디지털학과

'탑간' 가입해  
드론에 대한 다양한 주제 연구도



Global Alumni Message  
해외 동문 메시지

일본 동경공업대학  
재료공학과 조교수 / 전자 05  
김정환

# ‘음악 바보’가 ‘반도체 바보’로

- 나상신, 조중열 교수님이 고마워서...



김정환 동문은 일본 동경공업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2005년 입학했고 2012년 일본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공업대학에서 학업을 이어 갔다. 박사학위를 받고 2016년 3월부터 이 대학 강단에 서었다.

대학 시절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아주대 전자공학부에 입학해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 습니다. 수강했던 6개 과목 중 한 과목에서 D를 받았을 뿐, 나머지 5개 과목은 모두 F였습 니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 받는 F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습니다. 언어 가 문제가 되어 중학교에 편입할 때 학년을 하나 낮추어 다녔고요. 그 때문에 대학 동기를 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죠. 동기들은 저에게 ‘바보 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이 가 한 살 많은 학사 경고생이었기에 붙은 별명이었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은 저에게 ‘바보 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애칭이 좋습니다. 저란 사람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생 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빠지면 바보가 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음악에 빠져 살 았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밴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아주대 중앙 동아리 스파이더스에 들어갔고, 하루 온종일을 음악과 함께 보내는 생활을 했죠. 돌이켜 보면, 제 자신이 비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내주시는 학비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부모님과 협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의 저로서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반 대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는 학교에 잘 다니는 척 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그대로 동아리방으로 향했어요. 2학년을 앞두고 부모님을 겨우 설득하여 1년간 휴학을 했 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밴드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국 음악 쪽으로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한 채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진학하던 전자공학 과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이수한 학점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군 생활을 하며 매일 을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이 모두 끝나버린 것만 같았어요. ‘벼랑 끝에 섰다’라는 말을 실감 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무언가를 무조건 찾아야만 했죠. 그러던 중 ‘전자공학’이 라는 분야에 먼저 흥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전자공학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 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소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기 그 지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만지작거렸던 전자기타의 앰프와 이펙터가 모두 반도체 트 랜지스터들로 구성된 전자회로라는 이유였죠. 매우 단순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령게 약간이나마 전자공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 어요. 군입대 전 제가 공부한 것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엔 기초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죠. 아니 거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복학 학기 첫 전공수업으로 나상신 교수님의 <회로이론>을 수강했습니다. 교 수님의 강의가 모두 외계어로 들렸어요. 그런데 주변의 학우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 해가 된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 게든 이 위기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나상신 교수님 방을 찾아 갔습니다. 솔직하 게 말씀 드렸죠.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그 말을 들으신 교수님께서 새하얀 A4용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 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미에 저에게 “이해가 되었니?” 라고 물으셨죠. 저 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이해가 안 되

니?”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부분은, 고등학교 수학 정도 수준의 아주 기 초적인 내용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상신 교수님은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해 주 셨어요. A4용지가 가득 차면 또 새 종이를 한 장 꺼내시고, 정성껏 써 내려가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두 주 주 세 주... 수업이 끝나면 항상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께서는 늘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수업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하 더라고요. 중간중간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나상신 교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회로이론 너무 재미있습디다”. 교수 님께서 이렇게 답 하셨죠- “전공 수업이 재미있다고 하는 학생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 수 업에서 저는 B+라는 학점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저에게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그렇게 무엇이든 깊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 엇보다 먼저 기초가 부족한 저 같은 학생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열정으로 가르쳐주시는 나 상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교수님께서 저를 가르 쳐주시다가 다음 수업에 늦으셨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가게 되면 그 것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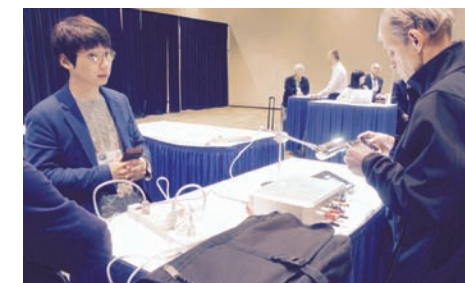
다음 학기부터는 반도체 관련 전공수업을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학 학기가 지나고 바 로 다음 학기부터 졸업 직전까지 항상 올 A+를 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단과대학 수 석에게 주어지는 대우장학 장학금도 받았으니까요. 입학 직후의 ‘음악 바보’가 복학 직후 ‘반도체 바보’로 바뀌었던 것이죠. 제가 당시에 나상신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적어도 지 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바보’로 거듭나고 있던 저에게는 한 분의 고마운 교수님이 더 계십니다. 2학년 때부 터 인턴을 하게 되었던 연구실의 조중열 교수님이십니다. 조중열 교수님의 <전자회로> 수 업을 수강했는데, 그때도 수업이 끝나면 그 날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었던 점을 질문하러 교수님 방을 찾아 갔었죠. 어느 날 조중열 교수님께서 저에게 연구실에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예’라고 대답했지요. 조 교수님께서서는 산화 물 반도체를 연구하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산화물 반 도체는 보통의 반도체 재료와는 달리 투명하기에 영화에서만 보던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실 현시킬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메모리나 CPU에 사용되는 재료가 반도체인데,

보통의 반도체 재료는 투명하지 않지요. 당시 저에게 산화물 반도체는 너무나도 흥분 되는 연구 주제였어요.

결국 저는 산화물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호소노 히데오 교수님이 계신 일본 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만 하고 연구실을 떠나게 된 저였지만 조중열 교수님께서는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 장학생으로 선 발 되었고, 석사부터 박사 졸업 때까지의 학비, 생활비가 모두 해결되었어요. 정말, 저는 아주대에서 너무나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가 되어 학생을 지 도하고 있기에 더욱더 나상신 교수님과 조중열 교수님의 은혜를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대에서 ‘건강한 씨앗’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꽃을 활짝 피웠 죠. 교수님들께서 ‘기초 학력이 부족한, 가능성 없는 학생’으로만 저를 보셨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현대 사회는 매우 체계화되어 움직이고 있고, 다양한 능력이 요 구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수치가 가능한 이유만으로 정형화된 잣대로 청년들 을 평가하고 경쟁시킵니다. 저는 젊음과 열정을 가진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길이 열려 있 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 여러분의 고민은 정말 자신의 것인가요? 사회적 잣대와 타협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을 스포츠 경기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홈 그라운드야 아 니라 어웨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언어 소통,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난관을 극 복해야 하는 ‘변태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20년 이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 의 틀을 일단 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다 가서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변태기를 이겨내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 보면 넓어 진 시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 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 을 높이 평가해주는 곳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 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찾고, 자랑 스러운 아주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차세대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지 금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④



첫 학기부터 'F5' 출격시킨  
학업 무관심자

:

고교부터 대학까지 밴드생활  
지나보니 '비접합'이었다

죽도록 굶어대던 전자기타의  
전자회로에 관심 살마리 잡고 공부

:

기초의 기초부터 끈질기게,  
깊은 공부 유도한 교수님들

지금의 고민... 나 자신의 것인지  
들여다보길

:

넓은 세상 어딘가에  
나를 높이 평가할 곳 반드시 있어



김대명(심리 12) 학생의 시나리오 <소나타 1901>가 2018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20세기 초 대한제국 때 창단된 근대식 오케스트라가 애국가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다.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던 김대명은 군 제대 후 한동안 잊었던 꿈을 찾아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때로는 가불 받아 작업을 배우는 학원에 다녔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에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주인사이트>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기나 사건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영화를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극장 좌석에 앉아 스크린에 빛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순간을 좋아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제작사의 로고가 뜨는 장면-예를 들면, 배경음악과 함께 하얀 성뒤로 불꽃이 반원을 그리는 장면-을 좋아했다. 그때부터 영화감독이 될 거라 떠벌리고 다닌 것지만 반드시 이루겠다는 열망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천천히 잊어버렸다. 짧은 머리로 복학해서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을 때, 동기 하나가 시나리오를 배울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 한 마디 덕에 버려둔 채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났고, 그렇게 시작했다.

● 지난 2년간 시나리오를 배우고 쓰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기 보다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훨씬 컸다. 내가 투자한 시간은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해 보겠어?'라는 만족감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 힘든 점이라면 뻘뻘하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시험 성적처럼 점수를 확인하고 '몇 점만 더 올리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그저 혼자서, 혹은 내 시나리오를 읽어본 몇몇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재미있는지 없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치유가 1차적 목적이고, 타인(아마도 영화 투자자)의 평가는 부차적인 부분이다. 하나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타인에 의해 내 시나리오가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글로 밥을 벌여먹기로 다짐한 이상 거처야 할 일. 그럼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글을 포함한 수백 개의 글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도 서글픈 일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수없이 계속 되리란 것 또한 알고 있다. 우연히 한 번 당선됐다고 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리란



# 지금 아니면 언제?

**김대명 심리 12**

- 2018 신춘문예 시나리오 부문 당선

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이자 치유...  
그걸 평가받고 순위받는 일 두렵고 서글퍼

재출하고, 떨어지고...  
몰카같은 현실 기대하며 인간 맨 밑바닥의 얼굴 들춰 가겠다

'하고싶은 거 하라' 말 못해 각자의 삶에서 선택한 길 묵묵히 걷는 모든 분들 잘 됐으면...

보장은 없으니까 말이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수없이 제출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겠지만 이런 '몰카 카메라' 같은 일이 가끔씩, 솔직히 조금만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싶나?

장르적으로는 뉴욕한 사회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영화. 소재 측면에서는 '인간 밑바닥의 얼굴을 들춰낼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다.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애깃거리를 찾아내서 내 방식대로 풀어보고 싶다. 주제적으로는 메시지 말고,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수록, 관객을 가르치려 들수록 표현 방식이 획일화되고 이야기가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원가를 전달하려하기 보다 인물들에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해놓고, 인물들이 하는 선택과 행동에 생각할 거리를 심어놓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중에 내 영화가 스크린에 걸렸을 때, 관객들이 2시간 동안 즐기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번쯤 '그 장면은 무슨 의미였을까?' '영화가 끝난 후 그 세계에서 그 캐릭터는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주인들에게 한 마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땀 내가 동기-선배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를 것 없는, 한 치 앞을 모르는 대학생이고 사회 초년생이니까. 다만 내 경우에 한정시켜서 말하자면, 하고 싶은 것은 했다. 작가교육원을 다니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포기하더라도 지금 해보자. 한참 시간이 지나, 그 때 왜 안 했을까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도전했다. 차마 부모님께는 말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서, 때로는 가불을 받아서 학원비를 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시원스레 말하진 못하겠다. 꿈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웃기고, 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뚫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끈대 짓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환경이 있다. 내가 다른 이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 선택은 존중 받아야 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했고, 그 길을 열심히 걸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을 두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치열하게 숙고했다면, 그 모든 선택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④



▲ '작가의 꿈을 이룬 그는' 아주 어릴적 꿈을 불현듯 찾아 나섰고, 이제는 '행복한 서글픈 꿈을 깨닫게 된 샘'이라고 말했다(그림은 2018년 1월1일 한국경제신문의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기사, 본인의 요청으로 모자이크 처리).

# 석규야, 아주대로 와라!

좋아하는 공부를 깊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나다운 답을 찾게 해주세요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뛰게 해주세요

진짜를 다지고 나면 괴짜가 나오게 해주세요

과관학기제, 3인타-시메스터 등 '괴짜 같은 진짜'를 키우는

아주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세상의 모든 석규를 기다립니다.



**아주대학교**



김석규 군은 KBS의 '명견만리'에 출연, 학교 공부의 문제점과 청소년의 꿈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학을 바꾸는 대학' 아주대는 석규의 꿈을 응원합니다.

creative for great  
**GREATIVE**  
이제는 관습을 깨달고 만들어가는 것-이 CREATIVITY다

과관학기제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도전학기제

Trisemester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인 최대 3학기 해외교과목 수강 지원

'AFTER YOU'

배의 가치로 크는 환인제 '에프티유' 글로벌캠퍼스

Global Internship

다양한 직종을 세계의 현장에서 글로벌인턴십

서울보다 가깝다-신촌캠퍼스(강남역에서 아주대까지 30분!)

# RESEARCH NEWS >>>

## 한국공학한림원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 선정

**김용성·서형탁·송봉섭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기계공학과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한 '2025년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될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에 아주대 김용성·서형탁·송봉섭 교수가 선정됐다. 한림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00대 기술과 주역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기전자정보 ▲기계 ▲건설환경 ▲화학생명 ▲재료자원 분야로 나누어 심사했다.

지난 12월19일 한국공학한림원은 서울 조선회관에서 미래 100대 기술을 발표하고 해당 연구자와 연구분야에 대해 소개했다. **미래 가능성이 큰 100개의 기술과 이를 주도한 연구자 238명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 등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이 포함됐다.**

아주대에서는 3명의 교수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성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가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세포 침투 항체 기술로, 서형탁 교수(신소재공학과)가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광범위 농도 다중 모드 가스 센서 기술로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봉섭 교수(기계공학과)의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센서 융합 기술은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에서 유망 기술로 뽑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과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단체다. 공학 분야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체에 소속된 연구자 1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 초소형 버전 델타로봇 개발

**고제성 교수**

기계공학과



고제성 교수(기계공학과)가 참여한 연구팀이 초소형 버전의 델타로봇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 1월17일자에 실렸다.

고제성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공과대학 존 폴슨(John A. Paulson) 교수팀은 가로·세로 15mm, 높이가 20mm를 넘지 않는 초소형 델타로봇을 개발했다. 로봇의 무게는 0.43g이다.

**델타로봇은 수직·평행·회전 운동 등을 빠르게 수행하는 기계로 자동차나 식품 공장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팔'을 말한다. 델타로봇은 정밀도가 높고 속도가 빠르지만, 작동 원리가 복잡하고 들어가는 부품 역시 다양하다. 이에 그동안 델타로봇의 크기를 줄여 만드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고제성 교수 연구팀은 탄소섬유복합체에 전기를 주면 접었다 펴지는 압전소자를 붙여 델타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받침대 위에 팔 3개를 붙인 형태로 각각의 팔은 모터로 움직인다. 이 로봇은 1초에 75회 이상 운동하며, 물체를 5μm(마이크로미터·1μm=10억 분의 1m)부터 1mm까지 옮기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 등 여러 분야에 이 로봇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명현상 유지시켜주는 나노구조 기술 개발

**진효연 교수**

약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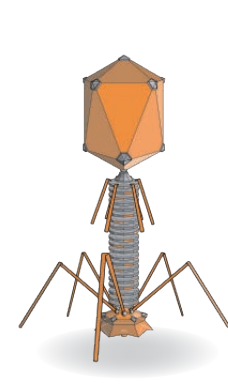


진효연 약학과 교수가 **자연계에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노 구조들을 공학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승욱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Production of tunable nanomaterials using hierarchically assembled bacteriophages'라는 제목으로 <네이처 프로토콜(Nature Protocols)>에 게재되었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발표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주기적인 나노 구조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나노 구조들은 하나의 기본 단위가 조합되어 많은 종류의 생체 내 핵심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단백질인 콜라겐이 대표적인 예이다. 콜라겐은 콜라겐 분자들이 서로 모여 자기조직화방식을 통해 독특한 형태의 구조들을 만들어 냈으로써 우리 몸에 필수적인 기능인 생리학적, 기계적, 광학적 성질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콜라겐과 유사한 표면 나선구조를 갖는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를 기본 단위체로 이용했다. 박테리오파지를 포함한 수용액에 실리코나나 유리 등을 담갔다가 적정속도로 빼주면, 용액과 실리코나 표면의 계면에서 박테리오파지 입자가 자기조직화 방식을 통해 박막 형태의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박테리오파지 입자의 농도, 표면의 화학적 성질, 박막 형성시간 등을 조절하여, 자연계에서 동물과 식물에 존재하는 구조체와 유사한 나노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에 원하는 펩타이드 작용기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능성 재료를 제작하여, 바이오센서 및 뼈조직과 유사한 인공 조직체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자지원사업) 및 연구재단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 고효율 테라헤르츠 광변환 소재 개발

**권오필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사진의 일부는 참고자료용 이미지입니다.



권오필(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팀이 고효율의 테라헤르츠 광변환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관련 연구 성과는 소재 분야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옵티컬 매터리얼즈(Advanced Optical Materials)> 1월18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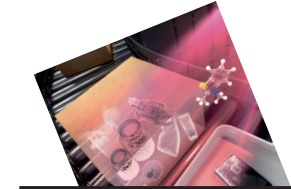
논문의 제목은 '동시에 전자주게 및 전자받게 특성을 지니는 치환체를 이용한 고효율 테라헤르츠 발생 유기결정(Efficient Optical-to-THz Conversion Organic Crystals with Simultaneous Electron Withdrawing and Donating Halogen Substituents)'이다.

권오필 교수팀은 전자를 주는 특성과 잡아당기는 특성을 모두 지닌 치환체를 이용해 테라헤르츠 광변환 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를 이용하면 기존에 이용되던 소재들에 비해 고효율 광대역의 테라헤르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동안 전기광학 유기결정인 테라헤르츠 광원 소재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광원 소재 자체의 분자진동에 의해 발생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같은 특성을 극복하고자 전자를 주는 특성과 전자를 잡아당기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치환체를 도입했다.**

테라헤르츠는 '몸의 전자파'로 불리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기존의 광파나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에 의료와 보안, 환경,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여러 테라헤르츠 광원 소재가 개발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테라헤르츠 광원이 저출력인데다 광대역을 포괄하지 못해 분석할 수 있는 물질에 한계를 보여 왔다.

권오필 교수는 "동시에 전자주게 및 전자받게 특성을 지니는 치환체를 이용한 고효율의 테라헤르츠 광원 개발 연구는 매우 드물다"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결정 기술은 다양한 테라헤르츠 광원 개발 및 분자진동 역제 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플라즈마 활용 종양치료 기술 개발

**김철호·김선용 교수**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철호·김선용 교수(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연구팀이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대표적 난치성 종양인 두경부암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음식을 삼키고 호흡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고 치료 후 여러 가지 해부학적·기능적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기술과 기기의 개발이 중요하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팀은 플라즈마가 두경부 암세포의 세포소기관, 라이소좀의 활성을 저해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세부 과정을 밝혀냈다.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이 분리되어 균일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흔히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상태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암조직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근거가 부족해 의료기기 개발로 연계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플라즈마 상체의 처리수를 두경부 암세포에 처치하면 암 성장 및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HSPA5 단백질이 감소된다. 이는 HSPA5가 유비퀴틴화된 후 분해된 것이다. HSPA5가 감소하면 라이소좀의 활성이 억제되고, 결국 암세포 사멸에 이른다.

연구팀은 기존에 MUL1 단백질이 두경부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억제되어 있지만 플라즈마에 의해 발현이 촉진됨을 보고했다. 플라즈마 처리수가 MUL1의 발현을 유도함과 동시에 HSPA5의 유비퀴틴화를 촉진시켜 분해를 유발시킴을 확인했다.

김철호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를 활용한 '플라즈마 의학'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항후 플라즈마 기반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오토파지(Autophagy)> 12월20일자에 게재됐다.



## ‘유전자 대백과 사전’ 개정판 펴내

**최상돈 교수**

생명과학과



최상돈 교수(생명과학과)가 유전자 정보를 총망라한 <신호분자 대백과 사전(Encyclopedia of Signaling Molecules)> 개정판을 펴냈다. 최 교수는 지난 2012년 총 3권 2000여 페이지로 구성했던 유전자 대백과 사전을 보완해 총 9권, 7200여 페이지로 올 초 출간했다. **이 책에는 인간 8000여개 유전자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인체 내 생리학적 역할 ▲항후 연구방향에 에세이식 설명과 칼라 그림, 표와 함께 실려있다.**

이 책에는 전세계 2000여명의 과학자가 참여했고 최상돈 교수가 이를 주도했다. 독일 소재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가 실물 책자와 e-북으로 펴냈다. 책에 실린 모든 데이터는 스프링거 레퍼런스 워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상돈 교수는 "개정판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세계 2000여 과학자들에 의해 기술되었다"며 "건강과 질병에 관한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유전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 NEWS >>>



## 아주대 “AFTER YOU”, 교육부 ‘파란사다리’로 확대

아주대가 교육부 추진 파란사다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파란사다리는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아주대는 향후 3년 동안 기존의 “AFTER YOU 프로그램”을 파란사다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파란사다리 사업을 수행할 주관 대학으로 아주대를 포함해 7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아주대가 단독 선정됐고 ▲충청·강원권 - 강원대, 충남대 ▲호남·제주권 - 전북대 ▲대구·경북권 -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부산·울산·경남권 - 동의대가 포함됐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생 800명을 선발해 정부(70%)와 주관대학(30%)이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 대학에서 4주 간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에 참가하게 된다.

선정된 주관 대학들은 1개 학교당 80명 내외의 학생을 모집·선발하게 된다. 자교 학생뿐 아니라 해당 권역의 타대학 학생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주관 대학은 대학 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들의 진로 멘토링을 비롯해 프로그램 전후 학생 관리를 맡게 된다.

참가 학생 선발은 기존의 “AFTER YOU 프로그램”과 같이 학점·어학 등이 아닌 자기 개발과 미래에 대한 잠재력과 의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파란사다리 사업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이 참여할 수 있다. 2018학년 1학기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장애 학생, 탈북 학생 등이 해당한다. 주관대학별 일정에 따라 학생 신청과 선발은 3~4월에, 현지인수는 6~9월에 진행된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사업

### PEOPLE

## 노명우 교수, ‘아들이 쓴 부모님 자서전’ <인생극장> 출간



아주대 노명우 교수(사회학과)가 부모님의 인생을 담은 책 <인생극장>을 펴냈다. 이 책은 사회학자인 아들이 대신 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서전이다.

노명우 교수는 <인생극장>에서 1924년 태어나 2015년 돌아가신 아버지와 1936년에 태어나 2016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을 복원했다.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 전쟁, 군부 독재와 산업화 등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이 배경이 됐다.

특히 <인생극장>에는 전후 미군 기지촌 주민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등장한다. 강제 징용되어 전쟁에 나갔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미군기지 근처에 정착했던 아버지와 전쟁 막바지 결혼해 파주 미군기지 근처에서 미장원을 열었던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다.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어머니는 미용실을 열어 돈을 벌며 자식 교육에 힘 쏟았다.

노명우 교수는 “아들이 대신 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서전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무수히 많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범한 삶의 다른 뜻은 보편적 삶”이라고 전했다.



##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열려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월23일 오전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장우진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박형주 총장의 신입생 2008명에 대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의 입학선서 ▲프랑스대사 축하 ▲총장 특강 순서로 진행됐다.

박형주 총장은 축하 대신 짧은 특강으로 신입생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20여분의 강연에서 박 총장은 이질적인 분야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낸 나이팅게일과 ZARA의 오르테가 회장을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연결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생각’연습을 많이 하라”고 주문했다. 입학식 이후에는 응원동아리 선택의 공연과 성희롱예방교육, 학생폭력예방교육이 이뤄졌다.



##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아주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22일 오후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83명, 석사 383명, 박사 137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정다희 MBC 아나운서(영문 10)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장우진 교무처장의 학위수여 보고로 시작해 ▲박형주 총장의 학위수여식사 ▲졸업생 대표의 답사 ▲시상 ▲학위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박형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마주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방향을 설정해 내는 ‘생각’의 힘을 가진 인재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필요한 소양을 미리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답사는 졸업생 대표 이반식 학생(경영 10)이 맡았다. 이반식 학생은 “AFTER YOU 프로그램-아주 글로벌 캠퍼스>와 교환학생 파견 등 아주에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반식 학생은 “이제 다른 목적지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노력해 간다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상(전체 수석) 자연과학대학 이호찬
- ▲총장상(단과대학 수석) 공과대학 김준수 정보통신대학 이승환 경영대학 박찬순 인문대학 기사라 사회과학대학 윤문선 의과대학 박형주 간호대학 김동연 약학대학 김다혜
- ▲아주인상(대내외 수상실적 우수자) 공과대학 서태환 정보통신대학 고우성 자연과학대학 원민섭 사회과학대학 김평 약학대학 서정민
- ▲총동문회장상 약학대학 우주형
- ▲추한프랑스대사상 인문대학 노민주



### AWARD & SELECTION

## 아주대 도구박물관, ‘경기도 2017 박물관·미술관 표창’



아주대 도구박물관이 경기도박물관협회가 주관한 ‘경기도 2017 박물관·미술관 표창’을 받았다.

아주대 도구박물관은 1993년부터 꾸준히 전시·교육·학술 활동을 해왔으며, 5편 가량의 논문을 수록한 <과거고고연구>를 매년 꾸준히 출간해왔다. 20여년 간 수집해온 민속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 유일의 도구 전문 박물관으로 개편한 이후 지역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 박물관은 매년 1회 교육원과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설 전시에는 종합관 1층에서 ▲전시사 도구 ▲목공 도구 ▲석공 도구 ▲대장간 ▲농기구 ▲도량형기 ▲생업 도구 ▲취사 도구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 EVENT

## 아주대학교의료원-평택시, 병원 건립을 위한 MOU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I(주)가 2월12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평택 브레인시티 시범부지 약 6만6000㎡에 500병상이 상 규모로 종합병원 등을 건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2년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차서 및 계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춘 아주대학교병원 이 평택시에 건립되면, 경기 남부지역의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은 1994년 개원하여 경기도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ICD)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을 갖춘 삼급종합병원”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병원 운영의 노하우와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헌신하는 대학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PEOPLE

## 홍만표 교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 선출



홍만표 교수(사이버보안학과, 창업보육센터장)가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정보보호학회는 고려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홍만표 교수를 제2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이다.

홍만표 신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정보보호 환경 하에서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공동 발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해 젊은 과학자를 유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지난 1990년 설립된 정보보호 분야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AWARD & SELECTION

## 대학기관평가인증 우수 사례 대학 선정



아주대가 2017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우수 사례 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독립·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에는 총 31개 대학이 인증을 신청했고 아주대를 비롯한 29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2개 대학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5년 간 유효하다.

아주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아주대와 연세대, 서강대, 나사렛대가 우수 사례 대학으로 뽑혔다.

### EVENT

## 수원시 공무원 교육과정 제4기 입학식 열려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제4기 입학식이 1월26일 을곡관 영성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원시 소속 6급 공무원 30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선발된 수원시 중견 공무원들은 앞으로 11개월 동안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의 지방행정 ▲올바른 공직관 ▲직무법규 ▲정보화 교육 등 19개 교과목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은 지난 2015년 제1기를 시작으로 4회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과정에 참여하는 수원시 공직자들이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알찬 커리큘럼을 잘 활용해 시정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교육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건강할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DONATION

## 동문기업 ‘더가든오브 박물관 학술교류 협약’ 1억원 기부 약속



더가든오브 내추럴솔루션이 1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기부금은 ‘내추럴솔루션 생활장학금’으로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재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두식 더가든오브 내추럴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지난 2월20일 학교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더가든오브 내추럴솔루션은 천연 소재를 사용한 화장품 원료와 식품 원료를 개발, 공급하는 회사다. 2016년 경기도가 뽑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의 장두식 대표(전자공학과 82학번)와 정문식 대표(생물공학과 87학번, 04년 박사학위)는 아주대 동문으로 평소 모교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더가든오브 내추럴솔루션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간 매년 1000만원씩을 기부하기로 했다.

### DONATION

## 안성근·김혜숙·정희용 기부자에 감사패



아주대에 기부금을 쾌척한 안성근 전장이엔씨 대표이사, 김혜숙 교수, 정희용 도병원약국 대표약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박형주 총장이 아주 가족을 대표해 기부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운 뜻을 전했다.

2월21일에는 안성근 전장이엔씨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안 대표는 1000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안성근 전장이엔씨 대표이사는 공학대학원 최고지식경영자 과정 동문으로, 공학대학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안성근 대표이사의 기부금은 공학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이 26일에는 김혜숙 심리학자 교수와 정희용 도병원약국 대표약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올 2월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는 김혜숙 교수는 심리학과 학생 가운데 행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심리학과 생활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희용 도병원약국 대표약사는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정희용 대표약사는 1억원을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약정하고, 매년 1000만원씩을 아주대에 기부해왔다.

### EVENT

## 교육 데이터 활용 노하우 공유 ‘사례기반 학습 분석 컨퍼런스’



<제1회 사례기반 학습 분석 컨퍼런스>가 지난 2월9일 아주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교육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주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아주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사례기반 학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국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성과관리센터의 교수, 직원 등 대학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실제 대학 교육 현장에서 교육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아주대를 비롯한 4개 대학에서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성균관대) ▲IR 지원실 성과와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법(한동대) ▲고등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대학기관 연구소의 역할(충북대) ▲교수학습 분석 시스템(ATLAS) 구축과 활용사례(아주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아주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4학년부터 정보시스템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질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 AWARD & SELECTION

## 소프트웨어학과 부은성 학생, 한국통신학회 최우수논문상



부은성 학생(소프트웨어학과 4학번)이 ‘2018년 한국통신학회(KICS) 동계공동학술발표회’에서 학부 우수 논문 부문 최고상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작은 Data Set에서의 뇌파를 이용한 영상 흥미도 분류>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주대 학생들의 수상이 특히 많았다. 장진우 학생(전자공학과 4학번)이 우수상을 받았고 고보연 학생(소프트웨어학과 4학번), 김기홍 학생(소프트웨어학과 4학번), 윤대영 학생(전자공학과 4학번)이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장진우 학생의 논문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를 이용한 실내 위치 측정 시스템>이다.

장려상을 받은 논문은 고보연 학생 <제2형 당뇨병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 신경망 모델 구축>, 김기홍 학생 <기계학습 및 소셜미디어 이미지 기반 우울증 분석 모델 개발>, 윤대영 학생 <Dolphin-Chebyshev Array Factor를 이용한 적렬 급전 배열 안테나 설계>다.

### EVENT

## 수원 초등학교 대상 창의과학 드론교육 열려



‘글로벌 꿈나무 창의과학 드론교육이 2월2일부터 이번 동안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수원 지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아주대와 수원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주대 LINC+사업단이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행사는 드론교육, 로보교육, SW코딩 그리고 ThinkWise(마인드맵) 4가지 주제로 드론 조종 체험, 로보 권투 시합, 미니 드론 레이싱 등 과학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NEWS >>>

EVENT

## 박래웅 교수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기술 이전



박래웅 교수팀이 의료정보 생태계 구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 기술을 ㈜에비드넷에 이전하기로 했다. 학교와 에비드넷은 3월6일 을곡관 제1회의실에서 기술이전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서비스 구현 기술의 특허, 저작권 및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 기술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박래웅(의료정보학과) 교수와 연구팀은 10억원의 이전료를 확보하게 됐다. 박 교수팀이 연구 중인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현 기술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료정보들을 여러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이 기술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과 교류를 통해 병원,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보험회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에 최적화된 임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 분야의 새로운 발전과 환자 중심의 치료법, 신약 개발, 질병의 사전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정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 이규미 교수, 한국상담심리학자상 수상



교육대학원 이규미 교수(심리치료교육 전공)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상담심리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상담 심리학자로서 일생동안 활발한 연구를 통해 기여한 바가 높은 학자에게 한국상담심리학자상을 수여한다. 이규미 교수는 이 상의 첫 수상자로, 시상식은 지난해 12월16일 <한국상담심리학회 2017 정기 총회>에서 열렸다. 한국상담심리학자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학회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VENT

## 은행연합회-아주대,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 과정 수료식



아주대 국제대학원이 <2017 은행연합회-아주대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의 현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주대학교와 은행연합회의 협약에 의해 2017년 첫 운영을 시작했다. 수료식에는 <2017 은행연합회-아주대 캄보디아 금융인력 양성과정>에 참여한 14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10주 동안 아주대에서 금융 리스크 및 금융 관련 IT 지식을 공부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국계 은행에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2017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에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들의 현지 신규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훌륭한 현지 인재를 양성해 캄보디아 경제 발전 및 한국계 은행의 캄보디아 내 금융사업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가 3년간 총 1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주대학교가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제공한다.

EVENT

## 전통시장 사업단, 권선시장에서 성과 발표회



아주대 전통시장 사업단(단장 최윤실 교수)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한 해 진행한 여러 프로그램을 결산해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성과 발표회는 지난 12월15일 권선시장 사랑방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단 관계자들 뿐 아니라 학생 코디로 참여한 재학생들과 권선시장 상인회 상인들이 함께 했다. 전통시장 사업단은 2016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 우수 사업단으로 평가받아 2017년 2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2차 사업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교육대학원 최윤실 교수를 단장으로, 교육대학원 학생들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100명의 청년 코디자들이 참여했다. 전통시장 사업단은 ▲효과적인 판매 마케팅을 위한 용기 개발 ▲SNS를 이용한 홍보 방식의 현대화 ▲권선시장 내 상선 진시회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규 고객 방문 유도 ▲권선시장만의 특화 요리 개발 ▲권선시장 내 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시장 이미지 개선 등의 활동을 했다.

EVENT

##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인더코어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아주대와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인더코어(Grand Ambassador Seoul associated with Pullman), 인더코어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21일 그랜드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아주대 최경희 산학부총장과 이돈민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풀만 대표이사, 한현석 인더코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상생형 산학협력 선도 모델 창출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그 우선 과제로 사들 인터트 앰비언트 테라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앰비언트 테라피(Ambient Therapy Service)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행동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대학교와 인더코어는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서비스 활성화를 연구하게 된다. 고객의 스마트 기기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숙면을 위한 테라피, 계절과 시간에 따른 적정 환경 제공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 실행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VENT

## 수원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 수원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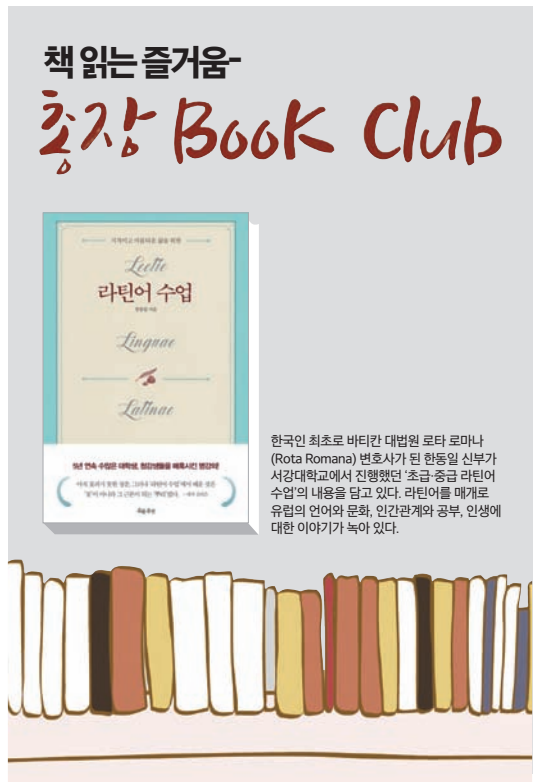
아주대학교와 수원상공회의소가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2월20일 을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아주대 최경희 산학부총장 겸 LINC+사업단장과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 ▲수원상의 화원기업 지원 사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 ▲산학협력 공동 연구 및 사업화 지원 연계 기술 개발 ▲협체제 등의 구성을 통한 양 기관 구성원 교류 ▲교육정보 및 시설 등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전국적·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종합경제단체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 산업공학과 학생팀,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 수상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제4회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주관했다. 산업공학과 김규웅(대학원·인제팀(4학년)) 학생은 <SACX 분석을 통한 효과 기반 기술기회 탐색 방법론>이라는 연구 주제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지도는 산업공학과 이성주 교수가 맡았다. 이 팀은 IP-R&D 전략 교육생 부문에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IP-R&D 전략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IP-R&D 전략 부문은 전문가와 교육생으로 나누어 우열을 가렸다. 교육생 부문에는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IP-R&D) 우수 방법을 발굴과 공유를 위해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VENT

## 아주 위대한 고전 경연대회 시상식



아주 위대한 고전 경연대회 시상식이 12월12일 을곡관 총강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도초옥(영어영문학과), 전성진(정치외교학과), 사우연(간호학과) 3명이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고전을 두루 접하고 깊이 사고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한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고전을 논제로 한 에세이로 예선을 거쳤고 본선에서는 '아주고전 해제집을 벌워로 시합(CBT)'을 치렀다. 최종 수상자는 예선과 본선의 점수 합산으로 가려졌다.

# NEWS >>>

AWARD & SELECTION

## 한상돈 교수, 한중법학회 우수논문상



한상돈(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중법학회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한중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국법연구>에 지난해 8월 게재된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형법변동 문제연구'다. 이 논문은 중국의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국형법의 변동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중법학회는 1994년 발족해 중국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판·검사도 회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해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 KOICA '국제개발 협력 이해증진사업' 재선정



아주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재선정됐다. 양 기관은 지난 1월25일 코이카에서 사업수행 약정식을 가졌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을 진행할 대학을 선정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로의 진로 탐색과 대학 연구기능 강화 등을 돕기 위해서다. 아주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와 ▲세계시민으로 살기 교과목을 1학기과 2학기에 각각 개설하고, 국제개발 협력을 주제로 한 해외현장실습도 정부지원을 받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VENT

##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 입학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과 경기도가 개설한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의 두 번째 입학식이 3월7일 열렸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20명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 을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20명의 공무원과 이필선 경기도 인사과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김홍식 공공정책대학원장, 박성민 주임교수 등이 자리했다.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은 공공정책대학원과 경기도의 협약에 따라 개설된 계약학과다. 계약학과는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해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을 말한다. 'NEXT'경기 전문가 양성과정에는 ▲지역 거버넌스 전공(행정학 석사)과 ▲지역경제 전공(경제학 석사)에 각 10명씩 20명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교육 기간은 2020년 2월까지 총 2년, 4학기다.

AWARD & SELECTION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7 사이버공격방어대회' 2위



소프트웨어학과와 사이버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고 국가정보원이 후원한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CCE: Cyber Conflict Exercise & Contest)'에서 2위에 올랐다. 이번 행사에는 ▲교과목 프로젝트 및 연구 성과물 전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물 전시가 마련됐다. 전시에는 2학기 소프트웨어학과 교과목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프로젝트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단이 진행한 초중고교 방문형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물,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과목인 R프로그램의 연구과제 결과물이 함께 됐다. 총 109팀의 한 학기 연구 성과물이 전시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그 중 23개팀을 선발해 시상했다. 서영진, 송기환, 유인선, 조재훈 학생으로 구성된 <Cinderella>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총 3팀으로 김태호, 전승근 학생과 <qwert> 팀의 송인호, 조찬영, 홍현진, 한강희 학생이 수상했다.

EVENT

## 'GREATIVE' 소프트웨어 콘서트' 열려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가 '아주대학교 GREATIVE 소프트웨어 콘서트'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12월14일 오후 을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교과목 프로젝트 및 연구 성과물 전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물 전시가 마련됐다. 전시에는 2학기 소프트웨어학과 교과목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프로젝트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단이 진행한 초중고교 방문형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물,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과목인 R프로그램의 연구과제 결과물이 함께 됐다. 총 109팀의 한 학기 연구 성과물이 전시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그 중 23개팀을 선발해 시상했다. 서영진, 송기환, 유인선, 조재훈 학생으로 구성된 <Cinderella>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총 3팀으로 김태호, 전승근 학생과 <qwert> 팀의 송인호, 조찬영, 홍현진, 한강희 학생이 수상했다.

# 책을 열자, 마음을 열자, 내일을 열자-



동서고금  
시공간을 넘나드는  
타임머신은 책이다.

이 봄,  
아주 북통호에  
탑승하세요.  
어제와 오늘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내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주북통'은 교수들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하면 그 책을 함께 읽고 싶은 학생들이 신청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도서관에서 함께 읽을 책과 토론 시간에 나누어 먹을 간식을 제공한다.

